



대한민국 선도할 서울대인의 가치는 ‘지성·겸손·봉사’

徐廷和 총동창회장 특별기고

한국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학교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성인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서울대의 교표처럼, 본래 지성이란 진리와 정의를 이끄는 인문학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 책임지는 새로운 지성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최고 지성인들이 개발해낸 기술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적, 과학적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실용적 지식이 인정받는 소위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 사회 최고의 인재들이 현 사회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책임지는, 실용적인 지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서울대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동문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미래

를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해야 할 온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성 지성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해서 도덕, 인성, 미학, 역사 등 전통적인 지성에 대한 탐구가 빛을 잃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성은 더욱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목전에 두고 전례 없는 국론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가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지도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인간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철학에 대한 깊은 탐구에서 나오는 지성의 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겸허한 통찰에서 비롯된 겸손

서울대인은 이 사회의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성취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조국과 민족을 향한 겸손함과 충심은 무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모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주통일 한국 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로 겸손은 만인의 화합을 이룩할 인격이며, 인간 존엄성의 본질입니다.

이렇듯 혁신을 선도하는 지성, 역사의 무게를 기억하는 겸손함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뚜렷해집니다.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입니다. 큰 역량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삶 속에 공익적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시대를 향한 사명감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동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가의 의지를 모아내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지성과 겸손의 결과물 봉사

서울대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해냈고 가장 많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실제로 서울대인들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배들로부터 이어지는 무거운 사명감을 기꺼이 받아 안으며, 국가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서울대인의 덕성으로 다시 한 번 굳게 세웁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서울대인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중앙도서관 冠廷館 준공

국내 최대 장서·규모의 대학도서관

글로벌 知性の 산실로 ‘우뚛’

지난 2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절단식을 했다. 좌로부터 한반도평화재단 韓和甲총재, 삼영산업 梁文姬본부장, 삼영화학 李碩俊회장, 관정이중환교육재단 李鍾煥이사장, 成樂寅총장, 李壽成 前국무총리, 柳鍾鈺관악구청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金鍾瑞교육부총장



모교는 중앙도서관 관정관을 신축, 준공했다. 이로써 옛 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연면적 5만7천7백47㎡, 열람실 6천여 석으로 국내 최대 대학도서관을 갖추게 됐다. <관련기사 18면>

별지부록 : 모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느리나무광장

10만엔의 수입으로 1년을 사는 홋카이도 4인 가족, 그리고 한 달에 10만엔을 자신의 개를 돌보는 데 쓰는 도쿄의 한 여성. 10여 년도 전, 일본에서 살던 당시 봤던 한 TV 프로그램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런 빈부의 대비를 흥밋거리처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버젓이 공중파에서 방영된 것도 생소했지만, 다음날 만난 일본인 20대 친구의 반응은 더 생소했다. 방송 이야기를 하며 흥분하는 내게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비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젊은 세대라면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내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해 말 국내에 번역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은 그 이유를 제대로 파고든 책이다. 일본에서 2011년 출간돼 큰 화제가 됐던 이 책은 일본 젊은이들의 생활만족도가 78.3%에 이르고, 중·고생의 95%가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끝없는 불황, 비좁은 취업문, 부조리한 사회제도에도 왜 젊

은이들은 저항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도쿄대 박사과정에 있는 지은이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말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인간은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 즉 젊은이들의 ‘행복’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지 않기

‘청년이 행복한 나라’라는 逆說

金 伶 姬
(고고미술사학88-92)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본보 논설위원



사회가 어떻게든 자기 주변의 작은 세계와 생활에만 집중하며 만족해버리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의 특징이 반영돼 있다.

우리는 어떨까? 2013년 한국사회에서 유휴 청년층은 전체 청년(15~34세) 인구의 10.3%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두자릿수 비율이 됐다. 삼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을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지은이 오찬호 박사 같은 이는 한 걸음 나아가, “한국은 미래는커녕 현재에서의 행복조차 사치인 곳”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는 강력한 자기계발 이데올로기 속에서, 20대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나 대학 간, 전공 간 서열마저도 당연시하고 있다고 오 박사는 지적한다.

무한 입시경쟁을 뚫고 올라온 서울대생의 경우, 졸업 뒤에도 사회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닐 터. 저항도, 반항도 없이 ‘자기 노력’만 되뇌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 사회가 변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일본이 보여주는 ‘행복한 나라의 역설’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관악시단

하늘과 땅의 그대

柳 宗 旻(조소60-64)
중앙대 명예교수·시인

하늘과 땅이
그대 속에 녹아들어
그대는 하늘 그대는 땅

그대 샘 속의 하늘엔
새별이 반짝이고
그대 한 움큼 흙 속엔
반만년 나무가 자라네

그대는 산과 강
그대는 구름과 비
세찬 질풍도 그대 속에 잠자네

그대 서면 하늘과 맞닿고
그대 앉으면 땅과 하나 되네
좌정한 그대는 한 그루 나무
시간을 뛰어넘는 한 그루 나무

동문칼럼

지난해 12월 23일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줄곧 증가하던 국내 암 발생률이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 과거에는 암은 곧 ‘사망 선고’였다. 하지만 암환자 생존율은 1999년 시작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암 사망률은 위암이나 간암, 폐암 등 일부 암에서만 감소하는 경향에 힘입어 2010년대 초반부터 전체 암 사망률이 남자 2.03%, 여자 1.52%씩 매년 감소했지만 암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남자 1.6%, 여자 5.7%)를 보였다. 결국 우리나라 암환자가 1백만 명을 넘는 상황에 이르게 돼 의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결국 대안은 암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멈출 것 같지 않던 암 발생의 증가추세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은 했지만 지금의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2010년대 후반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암역학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국내 갑상선암도 일시적인 현상(기간효과)으로 언젠가는 잠재 환자 수가 모두 소진돼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2년에 들어서면서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급증하던 유방암, 대장암도 그 발생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 국가의 암 현황은 국가단위의 암관리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생존율 증가시기→사망률 감소시기→발생률 감소시기’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제2기말에 속하는 ‘사망률 감소시기’에 속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번 발표로 2012년부터 제3기인 ‘발생률 감소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국가나 의료가 진단방법을 개발하고 조기검진 운영체계를 행정적으로 마련해 놓은 다음에 국민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그러나 생존율이 아무리 향상된다 해도 암의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암 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암의 사망률이나 발생률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연을 실천하거나 간염 예방 접종을 수진하는 일,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일이나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일 등 암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 대부분은 개개인의 의지와 실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 선진문화 의식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암의 약 3분의 1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암의 조

기검진도 매우 중요하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무서워 건강검진을 회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건강할 때 암을 찾아내면 그것은 초기에 암을 발견한 것이 되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조기 암은 적절히 치료를 할 경우 모두 합해서 95% 이상 완치를 시킬 수 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암을 늦게 발견하게 돼 본인이나 가족들이 고생하면 어떡하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암 발생률 감소의 의미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金英豪
인쇄인 朴承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강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鎮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馥,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旻日, 李啓聖, 金鎮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瑋,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홍보본부장 安興燮 편집장 金南柱 편집부 기자 林香默, 邊廷洙, 朴秀埈

관악출추

졸업의 계절이다. 졸업을 맞는 심정은 각기 다를 것이다. 원하던 직장을 얻거나 진로가 확정돼 뿌듯하고 설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 길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막막하고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단어 commencement가 졸업과 함께 시작을 뜻하듯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모든 이들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아무도 자신의 앞날을 확신할 수 없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얻기 어렵다. 학교 밖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국적과 본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하거니와 서울대 졸업장은 일종의 꼬리표다. 평생 자부심과 긍지를 주지만 주위의 선망과 남다른 눈길, 그에 따른 부담도 계속 따라다닌다.

얼마 전 방송된 케이블TV 드라마 ‘미생’이 장안의 화제가 된 건 직장생활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에 대한 대리의 생트집과 억지, 똑똑하고 열정적인 여성직원에 대한 남성 상사들의 편견과 선임견, 스펙 좋은 후배에 대한 선배의 엄격한 잣대, 적당히 눈감고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눈총과 질시.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으라!

그러니 어쩔 것인가. 선인들이 전하는 ‘지계 잘 지는 법’은 참고할 만하다. 욕심 부려 집을 잔뜩 엮어보아 무거우면 일어설 수조차 없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실으면 쏟아지거나 기우뚱거려다 넘어진다. 턱을 내밀거나 고개를 쳐들면 자빠지기 십상이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싣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걸어야 제대로 나를 수 있다.

이젠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 졸업축사 또한 삶의 지침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고백으로 시작한 연설에서 그는 ‘자기 인생에 확신을 갖고, 사랑하는 일을 찾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과 직관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으라!(Stay Hungry. Stay Foolish!)” 1970년대 중반에 출간된 활자판 구글 같은 책 ‘지구 카탈로그(스튜어트 브랜드 저)’ 최종판 뒤표지에 실린 한적한 시골길 사진 밑에 쓰여 있던 문구로 20대 때 처음 읽은 이후 줄곧 스스로에게 되뇌어왔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의 꿈과 패기, 사명감을 잃지 말기를! Stay Hungry. Stay Foolish! (朴聖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겸임교수·본보 논설위원)

魯仁煥동문 장학기금 9천만원 쾌척

지난 1월 5일 魯仁煥(경제54-58)동문(사진)이 본회에 장학기금으로 9천만원을 쾌척했다.

魯동문은 2006년 4월 본회와 1억원의 장학기금을 약정하고 1천만원을 출연했으며, 나머지 9천만원은 사후 지급하겠다고 유증을 약속했으나 이보다 빨리 기부가 이뤄졌다.

魯동문은 “작년에 40년간 거주하던 아파트가 팔려 생각보다 빨리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故 韓明和 가정교육60졸)도 이복출신이라 6·25



전쟁 중 고생을 많이 하며 학교를 다녔다”며 “죽기 전에 어렵게 학장시절을 보낸 후배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魯동문은 한국능률협회 부회장,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국제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외국인 안내 등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吳應準회장 재선임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월 14일 대전시 유성 호텔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吳應準(약학58-62)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으며, 姜信成(경영75-79)·李暎珪(정치79-

83)감사를 선임했다. 吳應準회장은 “아직도 못다 한 미진한 일이 남아있으니 마저 할 일을 마치라는 준엄한 분부로 알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문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며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白承德동문, 동창회 여성지회 회장인 吳世和동문, 장석순치과 張碩淳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安信東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본회 부회장 3명 추가 선임

申榮均·李鴻薰·金榮錫동문



申榮均부회장



李鴻薰부회장



金榮錫부회장

본회(회장 徐廷和)는 최근 제25대 부회장에 申榮均(치의학48-55)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 李鴻薰(법학65-69)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金榮錫(외교71-78)페리로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 고문 등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申부회장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신영흥산 회장, SBS프

로덕션 회장, 2선 국회의원, 제주방송 명예회장, 한국지역 민영방송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李부회장은 제주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한양대·전북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金부회장은 유엔 참사관, 외교통상부 구주국장, 주노르웨이 대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이탈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新舊 조화 이뤄 힘차게 출발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李墉雨)는 지난 1월 15일 대구시 노보텔 버건디홀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0년대 이후 학번들이 참석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참여가 두드러졌다. 1부 사회를 맡은 이정인(영어교육01-07)동문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02학번 동문 등도 큰 환영을 받았다.

1부 행사는 李墉雨회장(법학74-78)의 개회사와 李弘中(토목공학67-71)고문의 축사로 시작했다. 崔敬鎮(의학68-74)고문과

朴成進(사법84-89)동문이 축가로 ‘무정한 마음’을 불렀으며, CEO 테너로 알려진 白庸鎭(성악71-76)동문이 ‘목련화’를 열창해 피날레를 장식했다.

2부에서는 朴賢相(법학76-80)동문이 사회를 맡아 구수한 입담으로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으며,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동문들의 덕담과 건배제이가 이어졌다. 뒤풀이로는 ‘치맥’ 파티와 칵테일을 즐기며 오랜 시간 이야기꽃을 피웠다.

동창회는 올해에도 식목일 무렵 가족동반 걷기대회 및 춘·추계 회장배 골프대회를 비롯해 청·장년 동문 모임인 청관화와 월례회 등 다양한 모임을 계획했다.

李元種회장 선출

영동지부동창회

영동지부동창회(공동회장 李相庸·鄭義宗)는 지난 1월 8일 강릉시 송정동 래미안 컨벤션 별관에서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과 李元種(식품공학73-77)교수를 선출했다.

이어 李相庸·鄭義宗공동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신임 간사에 지남한의원 李泰鎬(임학80입)원장을 선임했다.

신년하례회를 참석한 동문들은 그간의 소식을 나누며 신년 덕담을 건넸다.

신년회서 친목 다져 전북지부동창회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월 26일 전주시 금암동 백리향에서 동문 및 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申龍文(국악70-78)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작은 음악회로 문을 열었다. 바이올리니스트 金恩喆(기악82졸)동문의 연주에 이어 소프라노 오연진(성악98-02)동문이 공연했다.

만찬에서는 이날 참석한 전북대 李南浩(임산가공78-84)총장, 柳成業(외교80-84)국회의원, 洪性三(행정대원87-89)전북지방경찰청장을 환영하고, 모교 관청도서관에 1천만원을 기부한 沈炳聯(법학73-77)변호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우석대 조법종 교수가 ‘동아시아 역사 영토 갈등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만찬은 JB금융지주 金翰(기계공학74-77)회장이 협찬했다. (秀)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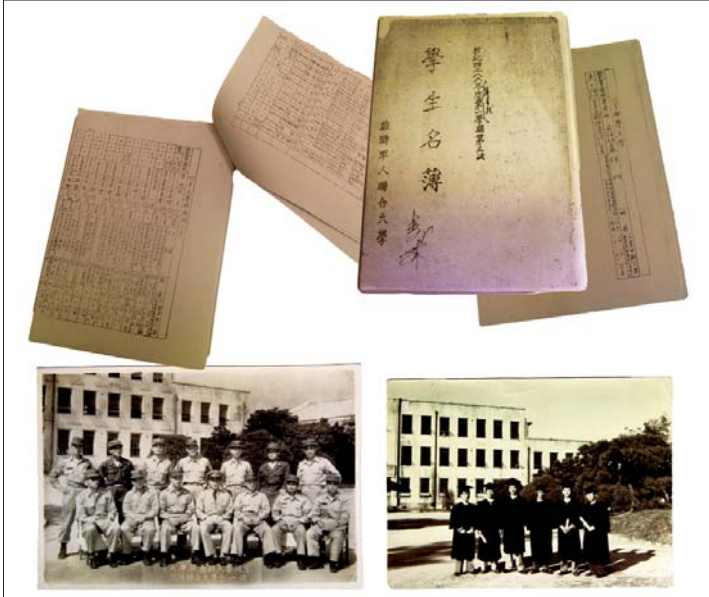
3월 20일 오후 6시 롯데호텔

- ◆일 시 : 2015년 3월 20일(금) 오후 6시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
 - ① 제17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 사업계획 보고
 - ③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 없음
- ◆문 의 : 02)702-2233

※ 한정된 좌석(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3월 6일(금)까지 사전 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徐廷和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2백12명 기증



동문 : 전지군인연합대학 학생명부, 재학생 일부 기념 사진 복사본 (사진) ▲宋升錫(교육51-55) 동문 : 육군 보병학교 관련 증서류 및 졸업기념사진 등 ▲尹可鉉(경제52-56) 동문 : 상과대학 10회 동문 회고록, 상과대학 동창회보 ▲故 金炳駿(의학58졸) 동문 : 등록카드(1956년) ▲吳洪哲(지리교육54-58) 동문 : 졸업증서 ▲故 鄭順台(생물교육54-58) 동문 : 등록카드(1956~1957년) ▲高炳恩(물리55-59) 동문 :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졸업사진 및 기념사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1월 1~31일 16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96명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2백12명의 동문과 교직원들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林應極(화학공학45-47) 동문 : 공과대학 관련 문서류, 사진, 회원명부 등 ▲朱 一(의학46-50) 동문 : 의과대학 졸업증명서(1950년), 임상강의록(1948~1949년) 등 ▲金在憲(교육50-54) 동문 : 모교 학생요람 ▲文永都(경제50-59)

진, 성적표, 출석부 등 ▲姜宗遠(행정56-60) 동문 : 법과대학 졸업앨범(1960년) ▲安秉玉(국어교육57-61) 동문 : 4·19 희생자 故 孫重瑾(국어교육57입) 동문 유고집 ▲朴容信(응용미술66-70) 동문 : 응용미술과 졸업생(1970년) 이름이 새겨진 돗쇠 문진 ▲金相洙(자원공학73-77) 동문 : 1970년대 체육대회 및 신입생 환영회 등 패넌트류 ▲南宮建(전자공학73-77)·沈錫田(식품영양78-82) 동문 부부 : 1970년대 전자공학과 동문회 회원수첩, 졸업식 리본 등 기념품, 대학국어 교재, 강의노트 등 ▲金今洙(국악76-80) 동문 : 1970년대 수업교재, 사진, 기념품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헌관,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담당자 : 김진현 대리

핸드폰 : 010-7224-075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吳允德·金慶漢·李大淳·金許男·成樂寅·金東建·李相赫·丁海昌·尹世榮·孫京植·李元雨·李載厚 동문

을 첫 모임에 4백여 동문 참석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東建)는 지난 1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金東建회장은 “오늘 행사에 많은 동문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35개의 테이블만 준비하다 45개를 준비했다”며 “金許男선배

님부터 50회 후배들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여흥 시간에는 金載承(사법84-88)동문의 클라리넷 연주, 具滋東(사법84-91)동문의 노래, 金學來(행정67-71)동문의 판소리, 모교 음대 비바중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본회 徐廷和 회장과 金東建회장 등 40여 명이 현금과 도서 등 물품을 협찬했다.



돕자상을 수상한 朴昌來·李邱洛·柳時卓 동문, 成耆鶴 회장, 盧榮煥·李炳瑞 동문

신년회서 60학번 단합 과시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1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60학번(18회) 동문 48명 등 5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柳莊熙(경제59-63)前동반성장위원장과 金大煥(경제68-75)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을 수여했다.

또 지난해 장학금을 출연한 盧榮煥(상학55-59)·李炳瑞(경제56-61)동문, 상대 18회 동기회(대표 朴昌來), 朴浩田(경영62-66)·金一燮(경영64-69)·金相熙(상학66-70)·柳時卓(경제68-72)·李邱洛(경제72-81)·梁虎承(경제74-78)·閔善植(경제78-82)동문에게 돕자상을 전달했다.



金龍煥·邊得洙·許信行·韓仁圭·鄭潤煥·李賢秀·牟壽美·鄭昌柱·李鶴來 동문

64학번 동기회 주관 신년회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賢秀)는 지난 1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64학번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 宋煥昌원로 동문, 韓

仁圭·鄭潤煥 명예회장, 李賢秀회장,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李鶴來학장 등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李賢秀회장은 “올해는 장학위원회를 정식 발족함으로써 상록문화재단 백년대계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南)



俞淑子·朴貞浩·梁光姬·朴賢愛·洪麗信·金晟宰·李笑雨·李倫京동문



1회 서국포럼·신임 회장단 구성

국대원동창회

국제대학원동창회(회장 裴鍾贊)는 지난 1월 2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신년회 및 제1차 서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裴鍾贊(대학원 99-01)회장, 정재원(대학원98-01)·禹昌彬(대학원 98-00)前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친교를 나눴다.

첫 서국포럼의 연사로 국민대 국제학부 殷鍾鶴(국제경제88-95·

대학원98-00)교수가 초빙돼 ‘한-중 FTA의 비판적 고찰’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裴회장은 “우리 동창회의 장점이라면 젊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동문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돌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코칭해주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대학원의 영문 약칭인 GSIS.or.kr 도메인을 구매해 조만간 개설할 계획이며 명부 작업이 75% 정도 완성됐다고 밝혔다. 다음 서국포럼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부회장에 변 웅(대학원02졸)동문과 KTB 프라이빗 에쿼티 김우겸(국대원05졸)부장을 추대했으며, 사무국장에 법무법인 제현 이지형(국대원01-04)변호사를 선임했다.

새해 덕담 나누며 새출발 다져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지난 1월 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梁光姬회장과 모교 간호대학 金晟宰학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梁光姬회장은 지난해 동창회에 도움을 준 동문들을 모두 호명하며 앞으로 ‘함께하는 동창회, 따뜻함을 전하는 동창회’로 만들기 위한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나눔 행사에 사용된 시루떡은 金晟宰학장이 찬조했다.

올해 첫 등산·골프대회 예정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金建浩)는 지난 1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동창회 李相滿교문을 비롯해 鄭英彩·李佑幸·李角模 前회장과 모교 柳判童학장, 尹政熙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金建浩회장은 신년사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 미래를 생각하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초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8월까지 3년여 동안 활약한 朴龍浩교수에게



金建浩회장(右)이 朴龍浩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만찬은 삼전당제약 朴轉敎(수의학74-81)대표가 협찬했으며, 金建浩회장이 참석자 전원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선물했다.

동창회는 올해 처음으로 등산대회, 초·중·고생 동문 자녀를 위한 특강 및 체험학습, 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南〉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황룡, 청동(bronze), 70×31×70cm, 2012년

※ 작가 한마디 : “황룡의 모습을 입에 여의주를 물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로, 다리는 악기의 형태로 음악소리를 내며 뛰어 다닐 듯한 모습으로, 꼬리는 피어나는 연꽃봉오리 형태로 치켜올려 만물의 생명을 기르는 생기발랄한 용으로 표현했다.”

全敏淑 作

〈작가약력〉

- ▲1974~1978년 모교 조소과 졸업
- ▲안산 예술의 전당(2012년) 외 개인전 5회
- ▲단체전 다수
- ▲우륵당 역사 인물의 거리 ‘강’ 첫선생’ 동상(2006년), 수안보 평 상징 조형물(2008년), 충주기업도시 상징조형물(2012년), 동의학원 설립자 석당 金任植박사 동상(2012년) 공모
- ▲現한국미술협회, 남한강전, 서울조각회, 갑인동인행전, 우리가까이전 회원, 중원미술가협회 회장, 이데아조형연구소 소장

1. "How to increase the precision of optic flow?"자연어 검색

Search results for "How to increase the precision of optic flow?".

Found in Content Classes: Codes & Standards 2,416, Engineering Books 6,757, Patents & Applications 30,770, Other IHS Sources 318, Articles & Journals 22,081.

62,345 results.

2. 검색 결과: 규격 2천건, eBook 6천종, 특허 3만 건, 논문 2만 건

4. Stereo image capture 및 moving image capture 기능을 통한 향상 : 미국 특허

3. 질문에 대한 Answer 카테고리 자동 활성화

5. Compensated HS 계산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도 향상 : IEEE Article

IHS Knowledge Collections

전세계 규격, 특허, 논문, eBook등 1억 건 이상의 공학 전문 자료들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검증된 시멘틱 검색기술로 통합 검색 결과 이상의 해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인 비행 드론 이나 재난구조용 로봇 등이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인 Optic Flow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문한 실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검색엔진의 원문 요약 기능인 Dynamic Summary를 비롯하여,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검색결과들을 자유롭게 번역해주는 번역기능 등 강력한 기능들을 Trial 신청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蔡方垠·朴德七·張翼龍·明泰鉉·崔相弘·林光洙·柳長壽·金讚煜·吳元錫·盧承卓등문

73학번 동기회 신년회 최다 참석

기계동문회

기계동문회(회장 柳長壽)는 지난 1월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F3 카레이서로 유명한 林榮元(기계항공공학04-11)동문부터 明泰鉉(기계공학46-50)고문까지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참석해 모임을 풍성하게 했다. 최다 참석 동기회는 73학번 동기회로 11명이 참석해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柳長壽회장은 “해외 선진국을 다녀보면 가장 부러운 게 기술을 바탕으로 1백년 이상 된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교 기계공학과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李愚日연구부총장 등이 주축이 돼 제작한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세계 제일 기계공학 만들기’ 연구책자를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기계동문회장을 역임한 본회 林光洙 명예회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서울대인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축사했다.

이날 柳長壽회장이 식사 비용을 전액 찬조했으며, 공대동창회 金載學회장이 와인을 협찬했다.

‘유민가’ 성황리 막내려 연극동문회

연극동문회(회장 李順載) 부설극단 관악극회가 지난 1월 8~17일 서울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한 ‘유민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3회 정기공연작인 유민가는 일제 때 동경 빈민가를 무대로 항일실형민의 애환을 다룬 작품으로 李順載회장을 비롯해 閔晶基(회화68-72)·羅浩淑(가정관리74졸)·金仁洙(건축74-79)·김선애(화학89-93)동문 등 20여 명의 회원이 출연했다.

연극동문회 金恩子(경영83-03)홍보간사는 “비수기인 1월 한겨울에 관람객 2천5백84명을 기록하고, 마지막 날 공연은 대극장을 만석으로 채웠다”고 전했다.

올 하반기에는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2탄이자 서울대학교 개학 1백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평리원 검사 李 儁(가제)’ 혹은 ‘1895’ 창작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鄭玉子회장, 李碩祐·韓洪九·崔甲壽 자랑스러운 사학인, 姜昌一 차기 회장

姜昌一회장 선출·사학인 선정

사학과동창회

사학과동창회(회장 鄭玉子)는 지난 1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姜昌一(국사71-80)국회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2015 자랑스러운 사학인’으로 모교 서양사학과 崔甲壽(서양사72-76)교수, 성공회대 교양학부 韓洪九(국사78-84)교

수, 다음카카오 李碩祐(동양사84-88)공동대표를 선정, 시상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羅鍾一(사학48-52)·韓永愚(사학57-62)명예교수, 지식산업사 金京熙(사학57-61)대표를 비롯해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임기를 마친 鄭玉子회장이 베풀며, 金宣利(사학64-68)동문이 수건세트, 모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金仁杰(국사71-75)원장이 달력 등을 기념품으로 협찬했다.

예비 치과의사 초청해 진로 조언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1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입 회원을 초청해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 SNU 2015’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 맞는 이번 행사에는 이 모임을 처음 만든 金秉燦 명예회장, 朴健培회장, 洪禮杓감사, 모교 李在一치의학대학원장, 柳寅哲치과병원장을 비롯해 신입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만남의 시간을 갖고 후배들의 진로에 대해 조언했다.

朴健培회장은 “이 자리는 졸업을 앞둔 69회 동문들을 위한 자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신입 치과 의사들에게 치과의사가 돼서 해야 할 일은 물론 인생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면서 “후배 여러분이 선배님들과 정겹게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치과의사로서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선배들이 들려주는 현실 속의 치과의사의 모습을 전하는 ‘Keynote Speaking’이 주제별로 열려 신입 치과의사들에게 다양한 치과의사의 활동 범위와 연구, 진료에 대한 조언을 들려줬다. 〈南〉

Since 1999

에스노블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반짝임만으로 당신을 현혹시키는 큐빅과 달리 다이아몬드는 색상, 투명도 등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다이아몬드처럼 까다로운 당신의 결혼, 에스노블이 함께합니다.

에스노블 회원가입문의 T.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080045

• 큰 꿈을 가진 아들의 고민

학생: 제가 꿈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래 네 꿈이 뭐냐?
학생: 제 꿈은 재벌 2세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학생: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 특이한 부부싸움

싸우고 나면 며칠간 말을 하지 않고 종이에 써서 대화하는 부부가 있었다.
크게 싸운 어느 날 밤, 남편은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함을 깨달았다.
할 수 없이 내일 아침 5시에 깨워달라는 쪽지를 아내에게 주고 잠들었지만, 다음날 일어나 보

니 아침 7시였다.
화를 내려던 그는 옆자리에서 무엇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여보! 아침 5시예요. 빨리 일어나요!'

• 책임지는 사람

회사 면접관이 입사 지원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회사 일에 책임감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죠?”
“지금까지 있었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독자제보 환영)



松崗포럼 개설·홈페이지 개편

정치·외교학부동창회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金允壽)는 지난 1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신년하례식 겸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成世正(정치 86-91)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삼양사 金相慶(정치45-49)회장, 모교 具範謨(정치52-56) 명예교수, 高建(정치56-60)前국무총리, 崔時仲(정치57-63)前방송통신위원장, 통일준비위원회 鄭鍾旭(외교59-65)부위원장, 민주통합당 李富榮(정치61-69)고문, 朴敏植(외교84-88)국회의원, 청와대 趙允旋(외교84-88)정무수석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金允壽회장은 “1945학번 선배님부터 2001학번 후배까지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했다.

동창회는 올해 LS그룹의 도움을 받아 조찬회와 회보 발간을 해나갈 예정이다.

金允壽회장은 “故 具平會회장의 아들인 具滋烈회장께서 선친의 학과 사랑을 추념하기 위해 동창회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기 조찬회 명칭을 具平會 동문님의 아호를 따 松崗포럼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또 柳榮山(정치84-88)동문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로도 접근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金正台·高熙權동문에 경영대상

GLP동창회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趙鏞根)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趙鏞根회장, 모교 국제대학원 金鍾燮원장 등 1백7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창회를 빛낸 동문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GLP경영대상에 수상

金正台(7기)대표, 티엔에스개발 高熙權(19기)대표, 우수경영인상에 동광화성 崔敏錫(9기)대표, 고영테크놀로지 金圭永(18기)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또 김연호(7기)동문 등 8명에게 감사패를, 高潤燮(9기)동문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趙鏞根회장, 李鍾默사무총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동문과 각 기수 동기회에서 1천여 만원의 금품을 후원했다.

동창회 발전 위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서울대총동창회가 올해 모교 개학 120주년을 맞아 동문 간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문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회원 발굴 방안
- 유대 강화 방안
- 회비 증대 방안
- 상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무적 강화 방안 등

동창회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가 있으신 동문은 아래 이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동문의 아이디어는 회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편집부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이메일 (snua1969@naver.com)

黃海領회장 추대 BCP동창회



바이오 최고경영자과
정 동창회는
지난 1월 13
일 서울 강남
구 파이낸스

빌딩에서 전임 崔蓮梅회장, 모교 수의대 朴龍浩·康景宣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1년여 동안 공식이었던 회장에 루트로니 黃海領(7기) 대표(사진)를 선출했다.

鄭 哲회장 선임 ASP동창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崔巨勳)는 지난 1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崔巨勳회장을 비롯해 모교 사회과학대학 錢英燮 과정 주임교수, 鄭元暢사무총장 등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ASP인상 시상식에서 CEO부문 추광호(5기), 공로부문 김성하(12기)동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진 임원 개선을 통해 鄭哲(17기)대평 대표이사를 새 동창회장으로 선임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박정원 대외협력실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입학 50주년 문집·전시회 추진

동송클럽

문리대 65학번 동기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李充陽)은 최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입학 5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동송클럽은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인사동 백송 갤러리에서 동문 미술작품 전시회, 5월 29일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기념 만찬을 열고 문집 발행, 가을 여행 등의 기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 예산으로 6천 만원을 책정했으며, 李充陽회장, 夫貞愛·宋常熙동문을 비롯

해 많은 회원들이 기부를 약속했다. 동문 전시회는 崔一玉동문, 문집발행은 金定姬동문이 각각 책임을 맡았다.

입학 50주년 준비위원회 宋泰鎬위원장은 “대학 입학동기들이 모여서 50주년 행사를 한다는 게 유래가 없는 일이고 특히 서울대 문리대처럼 다양하고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매년 즐겁게 지내다가 50주년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음악 공연과 학과별 노래 자랑, 빙고 게임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신년회 겸 총회 개최 SGS동창회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文國現)는 지난 1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文國現회장을 비롯해 모교 환경대학원 崔莫重원장, 成鍾祥과정 주임교수, 宋斗榮(22기)수석부

회장 등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崔松休(22기)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2014년도 감사보고와 동창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동창회는 올해 3월과 9월 장학금 수여식을 비롯해 도시문화생태탐방, 해외 도시 기행, 골프대회,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邊>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과 한국학연구소 설립기금 모금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제23차 전국평의원회의에서(2014년 6월 28일)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에 이어서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연구소(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Think Tank를 건립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와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Think Tank의 포럼, 브리핑,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구 학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을 극복해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서 보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쌓아 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서구 학계에서는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한국’ 하면 일본의 식민지 혹은 중국의 변방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식민화에 대한 당위성을 서구, 특히 영미 사회에 꾸준히 전파했습니다. 전후 한국의 신탁통치안은 이러한 일본의 악선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미국 학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본학으로 시작된 미주 한국연구자 1세대와 이들에게 훈련된 2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하고 있어 학계는 물론 이민 2~3세대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시각, 혹은 중국인의 시각으로 편향돼 온 미국 등 서구에서 한국학 연구 관행을 바로 잡는 이번 사업에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합니다. 2015년 1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며 가시적인 연구 결과를 내면서 2019년까지 1천만 달러(약1백10억원)의 예산을 갖춘 Think Tank를 만드는 대장정입니다.

연구지원 및 연구소 설립기금 모금과 동시에 준비위원회와 창립회원을 구성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河龍出(외교67-71)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프로젝트 팀 리더
- 李塚畛(정치55-59)미주동창회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吳仁煥(전문기상63-67)미주동창회장

— 연 락 처 :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무처 703-462-9083, 吳仁煥회장 : 301-775-3919
— e-mail : ioh0858@comcast.net / snuausa12@gmail.com

www.swtan.com

성원피혁은 **고품질의 천연우피혁**을
전세계 고객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자 끊임없이 힘써왔습니다.

Specialized in High Quality Leather for garment



成原皮革工業株式會社

會長 / 代表理事 金 重 基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17-7 TEL. 031-491-0212~4 FAX. 031-491-0504

공대동창회 金載學회장

(하이젠모터 대표)

하이젠모터 金載學(기계공학66-70)대표가 지난해 연말 공대대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金회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공대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 대표를 맡아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한국동문회장을 8년간 역임했다. 지난 1월 9일 기계동문회 신년회에서 만나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다.

－ 소감 한 말씀.

“재력, 명망 면에서 저보다 뛰어난 분이 많은데,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올해가 졸업한 지 만으로 45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인생에서 더 늦기 전에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 취임사에서 실시 일반 문화를 강조하셨는데.

“가장 활발한 조직은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열려 있고 또 실제로 참여하는 조직이라 믿습니다. 몇 분의 회원에 의존하는 동창회 문화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은 적더라도 참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



“비즈니스 스쿨이 한 학년에 80명씩 8개 반이 있어요. 졸업 무렵 학교에서 동문회 조직을 위해 반대표와 펀드레이저를 뽑도록 권하더라고요. 특이한 건 반대표는 경합 없이 뽑았는데, 펀드레이저는 세 명이 출마해 투표까지 갔어요. 펀드레이저를 하면 자연스럽게 선후배에게 연락할 기회가 많아 본인 네

것 같아요.”

－ 이력 중 국립합창단 이사장 직함이 특이한데.

“5년째 맡고 있죠.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는 건 아니고 경영에 대한 조언 차원에서 부탁한 것 같아요. 동창회장도 그렇지만 뭘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고 있죠. (웃음)”

신임 金회장은 모교 졸업 후 MIT(석사), UC버클리(박사), 하버드대에서 공부했다. 1977년 한국중공업에 입사한 뒤 포스코건설 부사장, 한국중공업 수석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 효성중공업 사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로부터 산업용 모터사업을 사들여 하이젠모터를 설립했다. 하이젠모터는 산업용 모터 업계에서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함께 3대 메이커에 손꼽힌다. 직원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3백명이며 올해 매출 목표는 1천억원이다. 부인과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南)

“다함께 참여하는 동창회 만들터”

죠. 회장인 저도 총무, 간사 같은 느낌으로 수평적인 동창회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 하버드대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트위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속 학우 소식을 전해줘요.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하버드대 동문회만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는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FP동창회 張昌炫회장

(한맥중공업 회장)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동창회는 지난해 12월 신임 동창회장으로 한맥중공업 張昌炫(7기)대표를 선출했다.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張회장을 만나 취임 일성을 들어봤다.

－ 취임 소감 한 말씀.

“전임 高永一(6기)회장이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고 총무간사, 학술간사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동창회가 급진장했습니다.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동창회의 명예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넓은 영역에서 열심히 봉사할 각오입니다.”

－ 동창회 장점이려면.

“다른 동창회의 경우 인맥 쌓기와 친목



올봄에는 7박 8일 일정으로 교수님들과 함께 이란으로 페르시아 문화기행을 떠날 예정이며 학술기행, 골프대회 등의 연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주안점은 ‘우리는 공부하는 모임’이라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MPFRI동창회 李載坤회장

(한양디자인가구 대표)



가을에는 한마음체육대회, 전국 각지의 유명한 외식업소를 찾아다니며 벤치마킹을 하는 맛 기행, 컨소시엄을 통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열리는 해외 푸드박람회 참가 등이죠.”

－ 앞으로의 계획은.

“동창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회원들을 위한 일부터 외식업체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식업체 전반적으로 카드수수료 및 세율 인하 등의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화를 통해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선배 기수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 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AMPFRI)동창회는 동문 친목활동이 매우 활발한 동창회다. 최근에는 MBC ‘무한도전’의 정준하(33기)씨도 수료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창회장에 선출된 한양디자인가구 李載坤(27기)대표를 만나 AMPFRI동창회의 활성화 비

“올봄에 페르시아 문화기행 계획”

들을 목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동문들은 약간은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의 시 중에 ‘친구를 사귄 때 정신의 깊이를 더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목적도 두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특별과정을 수료한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과정을 꼭 거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활동계획은.

“수료 후에 동창회 주관으로 인문학 심화과정을 열고 있으며 참여율도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 매 강좌별로 1백여 명이상이 참석했으며 너무 인원이 많아 제한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인원 수용을 위해 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는 겁니다. 대외적인 활성화보다는 인문학 강좌를 더 심도 있게 하고 관련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자주 개최해서 보다 깊이 있는 자기 성찰, 역사와 여러 문화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게 활성화라고 봅니다. 사회적 리더들에게 인문학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요구이며, 동창회로 인해 인문학이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張회장은 연세대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으며,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78년 한맥중공업을 설립해 지금까지 한 길을 걷고 있다. 한맥중공업은 대공간 구조물과 각종 플랜트 철 구조물을 수출하는 회사로 3백50여 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邊)

“지방 거주 동문의 참여방안 강구”

결을 들어봤다.

－ 동문 간 유대관계가 끈끈한데.

“동종업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동창회 모임이 아니더라도 여러 모임서 자주 뵈다 보니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전임 회장단들의 노력도 컸고요. 국내의 내로라하는 외식업체 대표들이 거의 대부분 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가네, BBQ, 채산당, 놀부 등의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대표, 임원들이 우리 과정을 수료했죠. 외식업 리더들이 한데 뭉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친목을 넘어 사업적으로도 동문 간 제휴,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올해 행사 일정은.

“정기총회 외 크게 네 가지의 연례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봄에는 골프대회,

는 후배들을 돕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잘 되고 있는 동창회를 맡게 돼 그만큼 부담도 크지만 미비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동창회 행사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참석이 어려웠던 지방에 있는 동문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전 정도의 중간 지점에서 회의나 행사 등을 진행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이 동창회에서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임 李회장은 동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1989년 한양디자인가구를 설립해 현재 맥도날드, KBS, 이화여대 등 2백여 곳에 가구를 납품하고 있다. 유니세프, 꽃동네 등의 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邊)



남자들, 피부관리가
뭐가 어려워?



남 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 르 · 오 스

무심한듯 발라도
하루종일 촉촉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AMP의 파워보습

남 자 를 아 니 까

UL·OS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krf 한국농어촌공사

세계 농어촌의
행복 동반자

농어촌 개발 전문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농지·물 관리 노하우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계 농어촌 만들기
나눔·봉사·배려의 정신으로 '세계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주요 해외사업 국가

- 코트디부아르
- 가나
- 앙골라
- DR콩고
- 탄자니아
- 에티오피아
- 아프가니스탄
- 인도
- 스리랑카
- 방글라데시
- 라오스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엘살바도르
- 볼리비아
- ...



[탄자니아] 도도마 식수개발사업



[미얀마] 농업기술지원



[에티오피아] 농업용수개발

화제의 동문

모교 ‘환경파수꾼’ 韓武榮교수



지난해 옥상 녹화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모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韓武榮(토목 공학73-77)교수가 이번에는 모교 변기 교체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절수 전도사를 자처해온 그의 눈에 서울대의 물 사용량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 지난해 서울대의 ‘1인 1일 물 사용량’은 1백75ℓ로 연세대 83ℓ, 고려대 54ℓ, 서울시립대 53ℓ보다 훨씬 많았다. 수도요금만 43억원을 냈다.

지난 1월 26일 관악캠퍼스 35동 연구실에서 만난 韓교수는 “학교에 있으면서 물 절약 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감시도 안 하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행동하는 지성인을 자처하는 우리의 뒷모습을 반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사비 들여 그린캠퍼스 운동 펼쳐

“요즘 많은 대학이 그린캠퍼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만 유독 그런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장서야 할 대학인데 말이죠. 퇴임이 6년 남았는데 그 전까지 서울대 ‘1인 1일 물 사용량’을 1백ℓ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韓교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5동의 남성 소변기(9개), 대변기(10개), 세면대(8개), 걸레 세척기(1대)를 사

비 5백만원을 들여 절수형으로 교체했다. 그 중 대변기 하나에 축정기를 달아 계산해본 결과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그 변기는 3천회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매화마다 일반 변기였다면 13ℓ 쓸 것을 4.5ℓ를 사용했으니 22.5톤을 절약한 셈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약 5만원(1톤당 2천2백원)을 아낀 거죠. 2년이면 충분히 변기 교체비용(3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처럼 사용이 빈번한 곳의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겠죠.”

韓교수의 이러한 노력이 알려지면서 본부 측도 중앙도서관과 기숙사의 변기를 시범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산과

관계된 일이라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韓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의 변기는 약 3천개, 9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학교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동문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일명 ‘토일렛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3천명의 동문이 한 사람당 30만원씩 기부하면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절약된 돈으로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 등 어려운 나라를 돕고요. 최근 이런저런 일로 실추된 서울대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물 절약을 위해 절수형 변기 교체 외 韓교수가 제안하는 것이 물 교육이다. 여기서

“퇴임 전까지 서울대 물사용량 40% 절감”

절수형 변기 교체 … 飲水思源의 생활화

잠깐 ‘물맹’ 자가진단을 해보자. ‘1. 당신의 하루 물 사용량은? 2. 당신이 하루에 수세변기로 흘려버리는 물의 양은? 3. 수도물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4. 하수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이외 4가지의 질문이 더 있는데 그 중 5개 이상 답을 못 맞추면 물맹에 해당한다.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평균 3개를 맞춰 물맹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수돗물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飲水思源이란 말이 있죠? 물을 마실 때 근원을 생각한다. 물론 속뜻은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르지만 물 절약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

지만 알려줘도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서울대 입학 면접이나 시험에 ‘물맹 테스트’를 넣으면 학생들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엉뚱한 상상도 해 봅니다.”

옥상녹화 주도 국제환경상 받아

韓교수는 토목공학 중 상하수도를 전공했다. 음용수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도시 상하수도, 댐 건설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좁은 범위에서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도 컸다.

8년 전부터는 매년 탄자니아, 베트남, 필리핀 등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방문해 빗물탱크시설을 만들고 기술을 전수한다.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보다는 빗물이 깨끗하다는 판단에서다.

인터뷰 말미, 韓교수는 그의 주도로 만들어진 35동 옥상 텃밭으로 안내했다. 지난해 빗물저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하며 오스트리아 에너지 글로벌 재단에서 수여하는 국제적인 환경상을 받은 서울대의 명소였다. 그곳에서 바라본 다른 건물 옥상들은 모두 행했다.

“모두 잠재적인 텃밭이고 정원입니다. 에너지 절감, 작물 수확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떡잎을 보면서, 아침이슬을 머금은 상춧잎을 따면서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한 중요한 무엇을 배우는 공간이 될 겁니다.” (南)

웹툰작가李佳英·崔允卿동문

현직 교사이자 웹툰 작가로도 성공을 거둔 모교 출신 재원들이 있어 화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웹툰 ‘매지컬 고삼즈’를 연재 중인 웹툰작가李佳英(국어교육06-10 필명 seri)·崔允卿(조소06-10 필명 비완)동문 이야기다.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인李佳英동문이 스토리를, 중학교 미술교사인崔允卿동문이 그림을 맡았다.

‘매지컬 고삼즈’는 얼떨결에 마법 능력을 가지게 된 고3 소녀가 학교를 무대로 펼치는 이야기다. 교사인 두 동문은 만화적인 상상 속에 교육 현장에서 느낀 현실을 절묘히 녹여냈다. 불 꺼진 학교에서 마법소녀로 활약한 주인공은 고단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수험서를 펼치고, 마법 능력은 입시 자소서 소재로 활용된다. 입시 위주 교육에 지친 요즘 학생들이 만화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이유다.

초등 동창 시절부터 만화 그려

초등학교 동창 시절부터 ‘만화 동지’였던 두 동문은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李동문이 만화의 알개에 해당하는 스토리보드를 짜면崔동문이 그림을 그리고 각종 효과를 덧입힌 다음, 다시李동문이 대사와 제목을 달아 한 편을 완성하는 식으로 작업한다. 두 동문은 “역할이 나뉘어 있지만 이야기를 짜다 막히면 상대가 아이디어를 주거나 그림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눈다”며 “서로 근무 지역이 달라 학기 중에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메신저로 의논하는데, 합이 잘 맞아 매번 무사히 마감하게 된다”고 서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매지컬 고삼즈는 주1회 연재하는 ‘목요웹툰’이다. 전업 작가에게도 일주일에 한 편씩 만화를 그려내기란 버거운 일. 학교 업무와 창작 활동을 병행하려면 더더욱 힘들어 법도 하지만 두 동문은 좀처럼 마감 시간을 어긴 적이 없다.

“웹툰을 그린다는 게 알려진 이상 학교에서는 더욱 긴장하는 편이에요. 업무에서 실수하면 만화에 정신이 팔려 학교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갑내기 현직교사…손발 맞춰 ‘晝耕夜晝’

‘네이버’에 ‘매지컬 고삼즈’ 인기리에 연재

퇴근하면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시간을 쪼개 체력을 길러둔 덕에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李동문과崔동문은 어릴 적부터 만화가를 꿈꿨다.李동문은 그 꿈을 잠시 접고 국어교사를 지망했다. 교원 임용시험 준비 과정을 그림일기처럼 그려 모교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리던 것이 학우들의 호응을 얻었고, ‘고시생툰’이라는 정식 웹툰의 작가로 데뷔하게 됐다. 먼 길을 돌아 꿈을 이룬 셈이다.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보면 답을 찾을



李佳英·崔允卿동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길이 답인지는 알 수 없네요. 최근 고전시가를 가르치면서 어려운 내용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안타까워 ‘만화로 읽는 수능 고전시가’(꿈을담는틀刊)라는 책을 썼어요. 만화로 국어지식을 손쉽게 풀어내는 국어교사, 교육 현실의 문제를 그리는 웹툰작가라는 타이틀은 한쪽 길에만 매진했다면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진로 고민이 많은 제자들에게도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 주곤 합니다.”

崔동문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 만화와 관련

된 입체,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장르를 배웠다. 특히 피규어나 영화의 특수효과용 조형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모교 조소과에 진학했다. 순수 미술과 더불어 다양한 미적 경험을 했던 것이 미술교사인 그에게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 만화 활용 노력도

“미술 전공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미술을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요즘 학생들은 순수 미술 외에도 만화나 영화, 게임 등으로 미술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 교사로서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의 작품 계획을 묻자李동문은 학생들을 위해 국어 문법을 쉽게 풀어낸 책을, ‘매지컬 고삼즈’가 데뷔작인崔동문은 아쉬운 점을 보완한 차기작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두 동문이 작년에 함께 다녀온 여행 이야기, 청년 이야기 등 함께 풀어 나갈 소재가 무궁무진하다고. 오랜 친구이자 만화가 동료인 두 동문은 변함없이 뜨거운 창작열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秀)

화제의 동문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주)한국이앤엑스

회장 김충한(ACAD. 국가정책 18기 / AMP. 최고경영자과정 19기)



유심통상
YOUsim

인쇄물, 명함, 리플렛, 전단지, 라벨류, 폴리백, 쇼핑백 전문회사

대표 이 기 형

Mobile : 010-2604-2870 / E-mail : mualee@naver.com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46-1 2F TEL. 070-7743-2871 FAX. 02-2274-2870

學校法人 曉松學園
永東一高等學校
(최신 기숙사 시설)

理事長 하 욱(法大 75卒)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93(잠실동) TEL : 02.430.6822





“서울대, 국내 라이벌 있어야 지속적 발전 가능”

특별 인터뷰

黃祐呂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黃祐呂(법학65-69)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터뷰를 약속하고 몇 번의 장소, 시간 변경을 거쳐 1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어렵게 만났다. 黃부총리는 이날 아침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장례 조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점심에는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행복고

육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청사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언론 인터뷰,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가 길어져서 인터뷰 시간도 30분 지연됐다. 급히 회의를 마치고 접견실로 들어선 黃부총리는 트레이드마크인 ‘하회탈 미소’로 일행을 반겼다.



대담 : 鄭星姬(동아일보 논설위원)논설위원

— 오늘 귀국하셨는데 피곤하시겠습니까.

“오늘 일이 많네요. 모두 8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조문을 다녀왔어요. 총리 인사가 생겨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부랴부랴 전 일정을 중지하고 다녀왔습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데 박근혜대통령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시기가 좀 그랬어요. 3월에 국민 방문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 여성대통령이 여성 차별 국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를요.

“네, 그런 상징성이 있죠. 이번에 조문단으로 가셨다면 국민 방문의 의미가 퇴색되죠. 사우디가 중동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민 방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 장관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부총리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최근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처음 사회부총리로서 회의를 주재하셨죠.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문제는) 복지부 담당인데 복지부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회부총리로서 여러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한다는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융·복합적인 행정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었죠.”

—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구자가 장관님 지역구인데,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예전부터 보육교사들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선진적이고 그야말로 조용하게 해결하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여러 번 갔는데 언론 노출을 굉장히 꺼려요. 사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일절 못 만났어요. 저는 제 지역구니까 아동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가서 면담부터 시작했죠. 상담부터 하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길을 열어주니까 만날 수 있었죠. 5세 아이들은 보건소에 ‘Therapeutic Preschool’ 시스템을 도입해 의사선생님들이 6개월에서 1년간 관찰하도록 했죠. 3~4세 아이들은 의사선생님이 볼 때 그렇게 큰 정신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해당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2월 17일 경 다시 등원하게 될 거예요.”

— 올해 교육관련 역점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대학과 관련해 구조조정이라고 말

• 黃부총리는

인천 제물포고를 나와 모교 졸업 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 국회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표최고위원을 지내다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11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

하는데, 사실은 대학의 활로를 찾는 일이 있죠. 대학사회의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에게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대학은 하나의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대신 이것을 역사상 처음 대한민국 대학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줄어드는 학생 수요, 유학생·해외동포로 채워야

대학교육 공공재 성격 커... 반값 등록금 시행

— 무슨 의미죠.

“그동안 우리 대학들이 학생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2020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도 대학정원 16만 명이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16만명 정원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것이 구조조정안이었죠. 그런데 그 줄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사회적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16만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16만명이 아니라 20~30만명까지도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학생을 만들어 오느냐? 첫째가 유학생들이죠. 동남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강대국이나 초선진국은 후발주자로서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한국같이 짧은 기간 내에 확실한 실증을 보여준 나라에 와서 자신감도 얻고,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이점이 있죠. 그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전 세계 1백70개 나라에 7백만명의 동포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공동의 우물’을 한 민족이 같이 마시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와서 공부도 하고 섞여야

장관으로 승격됐다.

대외 활동으로 국회조찬기도회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제11대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모교에서 ‘독일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저서로 ‘지혜의 일곱 기둥’, ‘법에 있어서의 인간(역서)’ 등이 있다.

죠. 섞여야 1조 달러가 넘는 무역에도 파트너가 되고, 그 일에 종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본국과의 연결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연결되는 순간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들로서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 축소지향적으로 학교를 없앴다기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채운다, 그런 발상이에요.

“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 수요를 인정하는 거죠. 시각을 바꾸면 뭔가 막 보여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 1백만명 가까운 해외근로자들이 와 있잖아요.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 형이 독일 공부로 나가잖아요. 해외근로자에게도 그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 벌어서 전액을 다 고향에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마. 유학생이 한 명 온다면 우리가 국비장학생으로 다 줄 수는 없으니, 너희 가족 한 두 명이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학비도 충당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 한편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흡족하지 않으니 사내 대학이나 폴리텍이 생기고 있어요. 대학에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대학이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기능이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은 40~50대들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대학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면 수요가 폭발해요.”

— 평생교육은 가야 할 방향이죠. 지금은 프린스턴대나 하버드대 등 온라인으로 학위까지 주고 있잖아요.

“우리고 K-MOOCs도 준비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대학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에요.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과 능력이라는 거죠. 대학이 변하지 않으니 사회가 다른 통로를 열고 있어요. 그거는 대학 정문에서의 변화예요. 그런데 대학 정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끝치가 아파요. 예를 들면 사범대학 같은 경우죠. 작년만 해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만3천명 배출됐는데 아무리 선생님을 늘리려고 해도 5천명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수요가 줄고 있죠. 이러다간 4천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과거 사범대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장관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말만 하면 두드려 맞죠.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있겠어요? 사범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손해배상 청구할 일이에요. 선생님 시켜준다고 해서 들어와 인성교육 받고, 하늘에 맹세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막상 교문을 나가면 황무지예요. 寒帶예요. 시베리아도 이런 시베리아가 없어요.”

— 그 학생들이 대부분 우수하잖아요.

“우수한 아이들을 평생 고생시키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IT 분야 같은 곳은 사람이 모자라 수천 명씩 해외에서 데려오잖아요. 또 해기사, 선장이 없어서 세월호 같은 일이 발생하고, 젊은이들을 키워야죠. 지금은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 보고한 ‘산업중심형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도록 정부가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인문대를 폐쇄한다거나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 거죠.

“절대로 아니고요. 일 학습 병행이나 선취업 후진학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가면 아이들 취업이 잘 되고, 맞춤형 공부를 하게 되므로 학습량이 줄어요. 그러면 여력이 남게 되니까 그때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고 취업하는 게 아니라 취업한 아이들이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인문학 전공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대학은 재정의 블랙홀 되는 게 맞아”

☑ 인문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다들 취업준비 하죠.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소양으로 인문학을 하는 게 정상이지, 인문학만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해요. 그건 인문학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는 거죠.

산업중심형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교수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두 번째 정원은 유연하게 한다. 세 번째로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한다.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돌풍이가 날아와요.(웃음)”

— 아무래도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모교 이야기로 돌아와서, 법인 서울대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답하기에는 조심스럽고요. 멀리 봐서 라이벌을 찾아야 해요. 공통 멸종이 보여주듯 외로운 천재는 도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뭉집 불리기’라든지 ‘고독한 천재의 길을 걷겠다’든지 하기보다는 건전한 라이벌을 키워야 해요. 도쿄대-교토대, 옥스퍼드대-케임브리지대, 하버드대-예일대가 있듯이 ‘서울대만의 서울대’는 안 돼요. 좋은 라이벌을 키워야 해요. 둘이 아니라 셋이면 더 좋다고 보고요. 서울대는 국내에 라이벌이 없으니까 해외 대학과 경쟁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내 라이벌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사립대학이 더 우월해질 수 있어요. 라이벌 국립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국립대 한두 개는 더 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국력을 감안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박근혜대통령께서 ‘올해를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반값 등록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본인의 영달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라고 사회가 몰아붙여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1백%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재정이 안 되니까, 또 학생들도 우선 반값만 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반값으로 한 거예요.

반값 등록금은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들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걸 낮추도록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직접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대학을 지원해서 등록금 의존도를 점점 줄여 들어가도록 해야죠.”

— 등록금에 대학이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십니까.

“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대학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등록금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오히려 대학 측에서 ‘그거 필요 없어요, 더 깎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대학은, 재정의 블랙홀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블랙홀이 에너지가 없



학창시절 장기산행 즐길 정도로 등산 좋아해 농대 꿈꾸다 고3때 문과로 전향 법대 합격

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도록,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너무 야박하게 경제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 상징적인 게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 보고 흑자 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대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에요? 의술을 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와 상당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학교 다닐 때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서울대가 부총리께 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울대는 저에게 마음의 여유를 준 것 같아요. 정상인으로서의 마음의 여유. 자존감이라고 할까.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는 숨을 내쉬면서 여유를 느끼고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두 번째는 국가적 사명감을 심어줬죠. 서울대 와서 이렇게 저렴한 등록금으로, 또 그것마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결국 국민들이 해준 것이니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을 심어줬죠.”

—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저는 법과대학에 고시 보려고 들어가 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교장선생님이 ‘流汗興國(흐르는 땀이 나라를 부흥하게 한다)’을 언제나 강조하셨어요. 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대에 가려고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과를 선택하고 한 참이 지나서 우리 집에는 농도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3학년 때죠. 이걸 안 되겠다 싶어 문과로 옮겼어요.”

— 3학년 때 옮겼다고요.

“우리는 2학년 때까지는 입시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검도 배우고 교회 생활하고 책 읽으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죠. 문과로 바꾸게 된 동기가 당시 아놀드 토인비 등 역사학자의 책에 심취해 있었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군대 영장이 나오더군요. 그때 장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산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당시 법대에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가건설을 위한 데오꾼들. 대표적인 사람이 趙英來변호사였죠. 이 친구들이 굉장히 깨인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거죠. 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학자를 목표로 정말 공부만 하는 아이들었어요. 세 번째가 고시파예요. 저는 고시파도 아니고 등산파였죠. 영장이 나왔을 무렵 島山 安昌浩선생님의 전기를 읽다 ‘사내 대장부는 가족을 먹일 기술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島山 선생님도 이발 기술이 있었답니다. 그걸로 생활비를 벌고 그랬어요. 나도 이발 기술을 배울까 하다가(웃음) 링컨이 변호사로서 생계를 유지한 데 생각이 미쳤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죠. 몸이 튼튼하고 부모님과 국가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였는지 몰라도 선행 학습한 친구들보다 더 집중력을 갖고 공부했죠. 1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한 친구들은 4학년쯤 되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졸업할 때 5명 붙었는데 제가 거기 포함됐습니다.”

— 장관님이 교육의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들어보니까 비참직한 교육을 받아온 분이네요. 문·이과 통합을 몸소 보여주셨고, 고시도 선행학습 없이 치르셨고요.

“아버님이 독특한 교육철학이 있으셨어요.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인데, 80점 이상만 받아오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고요.”

— 아무래도 수능이 절대평가로 갈 것 같은데요(웃음).

“80점만 받으면 20점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 때문에 다양한 걸 할 수 있었어요. 사실 80점만 받으면 고등고시도 붙어요. 고등고시는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80점이라는 기준이,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면 낙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아버지는 1등 하라거나 100점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80점 받아서 못 붙는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을 좀 풀어놔야 돼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런 이야기할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아이들을 자연에 풀어놔야 하고 역사 앞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도 결국 너무 잡아매고, 너무 전공위주만 하지 말고 좀 풀어놓으라는 거 아닌가요.”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우리 동문들이 단순하고 겸허했으면 해요. 신과 자연, 우주나 이런 원리 앞에는 겸허하고 사람들에게는 단순했으면 해요. ‘Humble before Veritas, Simple before People’이라 할까요? 그러면 서울대 출신은 국민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때문입니다. 역사학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취직하려면 상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셔서 마음이 흔들렸죠. 당시 俞鎮午(법학29졸)선생님이 쓰신 수필에 ‘별로 재주도 없고 딱히 뭘 해야겠다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법대를 가라’는 글을 접했어요. 이걸 나에게 쓰신 글이구나 싶어 그때 법대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나같이 재주도 없고 뭘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법대에 가자고 했죠. 친구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저 혼자 지원해 합격을 했죠.”

— 문·이과 통합의 1세대네요.

“문·이과 통합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걸 제가 몸으로 보여준 선구자라 할 수 있죠(웃음). 그런 마음으로 법대에 갔으니 고시가 있는지도 몰랐죠. 대학교 3학년 여름까지 산에 미쳐서 인수능, 노적봉 등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설악산, 화악산 등을 10일 이상 장기 등반하기도 했죠. 산 속에 살다 오는 거예요.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익환 대표 (GLP/20기)

선한 인재들을 후원해주세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인재 장학금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인당 매월 생활비 30만 원 지원

* 가계소득 1분위: 연 환산소득 1,676만 원 이하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기준)

이만큼 필요합니다

매년 27억 원(학기당 750명)

360만 원이 모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1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 원이 모이면 기금 운용수익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참여

동봉된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팩스·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ARS 후원

060-700-8004 한 통화에 5,000원이 기부됩니다.

전화 참여

02-880-8004, 02-871-8146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전화 02-880-8004 팩스 02-872-4149 이메일 snuf@snu.ac.kr 사이트 www.snu.or.kr

중앙도서관 관정관 신축

李鍾煥이사장 6백억원 기부로 현실화

‘도서관 친구들’ 모금캠페인에 7백여명 참여

모교 소식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2월 5일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로비에서 成樂寅총장, 관정이 종환교육재단 李鍾煥(AMP7기)이사장, 삼영화학 李碩俊(ALP9기)회장, 李壽成(법학56-61)前국무총리, 보직교수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상 8층, 연면적 2만7천2백45

m²(8천2백41평)규모로 건립된 관정관은 열람실을 비롯해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 플라자, 콘퍼런스룸, 패컬티 라운지 등 첨단 시설을 갖춘 이용자 맞춤형 공간이다. 자료 중심 서비스 공간인 본관(기존 중앙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신축 관정관과 본관(1975년 건립)을 합한 모교 중앙도서관은 연면적 5만7천7백47m²(1만7천4백68평), 열람실 6천여석을 갖춰 장서와 면적을 통틀어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成樂寅총장, 李鍾煥이사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등이 관정관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관정관의 이름은 모교의 숙원이었던 도서관 신축을 위해 국내 대학 사상 개인 최고 기부액인 6백억원을 쾌척한 冠廷 李鍾煥이사장의 호를 따와 명명했다. 삼영화학 그룹을 창립한 李이사장은 2000년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 총 8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장학재단으로 성장시키며 연간 1백20억원 규모의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 등 7백여 명이 총 1백억 원이 넘는 도서관 신축 기금을 기부했으며, 관정관 내부 공간과 의자, 서가 등 가구에는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날 준공식에서 成樂寅총장은 李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도서관 로비에 李이사장의 흉상을

제막해 뜻을 기렸다.

李이사장은 축사에서 “모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관정의 百折不屈의 집념이 도서관 곳곳에 배어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정관은 내부 단장 후 이달 23일 개관할 예정이다. (秀)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방문

양국 고등교육 발전방향 논의

모교는 지난 1월 27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싱가포르 HENG Swee Keat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고등교육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교 成樂寅총장, 李愚日연구부총장, 金秉文교무처장, 金正漢학생처장, 白承學교무부처장과 싱가포르 HENG Swee Keat교육부 장관 및 NEO Kian Hong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李愚日연구부총장 주재로 열린



成樂寅총장, HENG Swee Keat장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학의 성공 요인과 서울대의 위상, 연구전략 및 대학 미션과의 연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양국 고등교육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마산업 李成熙회장 1억원 쾌척

모교병원

현마산업 李成熙회장이 지난 1월 2일 모교 병원(원장 吳秉熙)에 1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모교 병원 대한의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李成熙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하는 서울대 병원의 소명에 함께 하고 싶다”며 “기부금이 환자,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吳秉熙원장은 “李회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후원금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와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모교 병원의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李成熙회장, 吳秉熙원장

李회장은 1979년 현마산업의 모태인 무역업체 삼우무역을 설립하고 제14대 한국수입협회장을 역임했다.

또 모교인 한국의국어대의 경영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 데 이어 2010년 약 50억원 규모의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을 설립, 장학사업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앞장서왔다.

기업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建雨)은 지난 12월 29일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소회의실에서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鄭雲燦)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력을 위한 연·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모교 공과대학과 동반성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해결 및 실질적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李建雨학장, 鄭雲燦이사장

이에 양 기관은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악 치과병원장에 金性均교수 선임

지난 1월 26일 관악 모교 치과병원 초대 원장에 치과보철학교실 金性均(치의학87-93)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金원장은 모교 치의학



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모교에 부임해 치의학대학원 국제교류실장, 치과병원 홍보실장을 역임하고 관악 모교 치과병원 건립준비

단 단장과 병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金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관악 모교 치과병원은 모교 치과병원 관악캠퍼스 분원으로 연면적 3천8백82m²,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3월 중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5학년도 등록금 0.3% 인하

재학생 경제적 부담 고려

모교는 지난 1월 6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0.3% 인하하기로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대학재정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등록금 인하결정을 내렸다.

모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9~2011년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12년 법인 출범 첫해를 맞아 국립대로서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5% 인하(학부)를 결정한 바 있으며, 2013~2014년 각각 0.25% 인하했다.

경영대 학장 南益鉉교수



신임 南학장은 지난 1993년

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모교 기획부실장, 재단법인 발전기금 상임이사,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香)

지난 1월 23일 모교 경영대 학장에 경영학과 南益鉉(경영81-85)교수(사진)를 임명했다.

非동문 郭聖賢 前경영대학 센터장

경영대글로벌리더십 지원에 1억원

경영대학 글로벌리더십센터 郭聖賢 前센터장이 지난 1월 20일 경영대글로벌리더십(TUFTS) 지원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成樂寅총장, 郭聖賢 前센터장과 남편 金澈鎬(외교70-74)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 회장, 李哲洙기획처장, 경영대학 金炳道학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글로벌리더십센터장을 지낸 郭 前센터장은 모교에서 국제 교류 활동 전반을 총괄했다. 지난해 9월 지식재산 분야 조정 및 중재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이팩조정중재센터를 출범, 현재 센터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8년에는 부친의 이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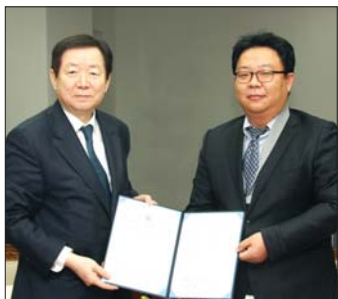


成樂寅총장, 郭聖賢 前센터장

따서 명명한 ‘宇淸 곽명덕 경영대 글로벌리더십센터기금’ 1억원을 출연했다. 남편 金澈鎬회장이 국제대학원에 3억원을 기부하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법과대학 학술기금을 출연하는 등 모교 발전에 꾸준히 지원해왔다.

대봉엘에스 朴鍾昊회장

도서관 환경개선기금 1억원 기부



成樂寅총장, 朴晝五대표

대봉엘에스 朴鍾昊(제약67-71) 회장이 지난 1월 16일 모교 중앙 도서관에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모교는 이날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成樂寅총장, 柳根培기획부총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해 朴鍾昊회장의 장남인 대봉엘에스

朴晝五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

朴회장은 대봉엘에스의 모회사인 화장품 업체 비봉과인을 설립, 1982년 국내 최초로 파마약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업을 성장시켰다. 이후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4백여종의 원료의약품, 화장품 원료, 식품첨가물 원료 등을 제조·개발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등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업 정신으로 ‘他利我得’(남에게 이익이 돼야 나에게 이익이 된다)을 강조해온 朴회장은 2013년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등 모교 발전에도 꾸준히 기여해왔다.

의과대학 鄭載民교수

의대에 학술기금 1억원 출연

모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鄭載民(약학77-82)교수가 지난 1월 22일 모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에 학술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成樂寅총장과 鄭載民교수, 柳根培기획부총장, 李哲洙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鄭載民교수는 “모교 교수로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혜택을 먼저 받은 자로 나누는 삶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鄭교수는 불모지였던 국내 방사성의약품 연구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핵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成樂寅총장, 鄭載民교수

2012년에는 질병 진단과 암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다기능성 나노입자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오는 5월부터 세계방사성의약품학회(SRS) 회장을 맡아 방사성 의약품 관련 국제적인 전문학회를 이끈다. <秀>

재학생의 소리



“미식축구부, 66년간 힘차게 운동장 누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식축구는 생소할 것입니다. 룰도 모를 것이며 선수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득점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것이 럭비인지, 아니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무장과 헬멧을 장착하고 무작정 공을 들고 뛰고 던지고 박고 박히는 운동이기에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제대로만 하면 최고의 운동입니다. 대학생회에 있어서 미식축구를 경험한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식축구부 그린테러스(GREENTERRORS)는 올해로 66주년을 맞이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운동부로서 체육 전공생이 아닌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린테러스는 매년 춘·추계 대학미식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포함한 뛰어난 성적들을 거두고 있

으며, 전국제패를 노리는 강하고 우수한 팀입니다. 이와 같은 결심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운동하는 열정 덕분입니다. 격년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쿠루메대학과 교류전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미식축구를



보급하면서 고등학생들과도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운동부답게 선배님들과의 교류가 활발해 매년 OB/YB전을 합니다.

선배님들께서는 활동비 지원이나 장학금 등 많은 도움을 주시며 감독과 코치의 자리도 맡아주셨습니다. 평소 운동할 때도 방문하셔서 지도해주시곤 합니다.

최근에는 66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배님들께서는 저희에게 ‘미식축구인’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는 대운동장에서 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운동장의 동아리실이 다소 좁아 동아리실

崔 然 成(아시아언어문명13입) 그린테러스 주장

을 확장하거나 장비실을 따로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학생들은 OB선배님들께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 덕분에 어려움을 딛고 계속 운동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그린테러스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운동장을 달리며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원기!

www.agh.co.kr

안 동 병 원
경북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보건복지부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정부가 지정한 {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권역응급의료센터 }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경북권역외상센터
[전국 12개 병원 지정]

정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치료 - 수술 - 중환자실 집중 관리 - 전문병동 입원치료 - 재활치료가 가능 하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 전용 전문치료센터입니다.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20개 병원 지정]

정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전용 CT, 응급소생실, 응급중환자실, 응급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9명을 비롯해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24시간 365일 최상의 응급진료시스템을 가동하는 경북 최상 위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경북닥터헬기
[전국 4개병원 운항]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초음파기, 심장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혈액분석기 등) 및 전문처치 약물 등이 탑재하여 경북권역에 2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시작하여 이송비용은 무료입니다.

안동병원원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안동병원, 2013. 11 ~ 2017. 11), (안동요양병원, 2013. 08 ~ 2017. 08)
심혈관중재술 인증병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2011. 07 ~ 2016. 07)
뇌혈관내수술 인증병원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2013. 07 ~ 2018. 07)
경상북도 의료관광 우수병원 (경상북도, 2013. 05)

안동병원 경북 안동시 양성로 11(수상동)
ANDONG HOSPITAL 054. 840. 1004



건강한 미래를 지켜가는 - SCD 삼천당제약

건강한 웃음이여, **「활짝」** 피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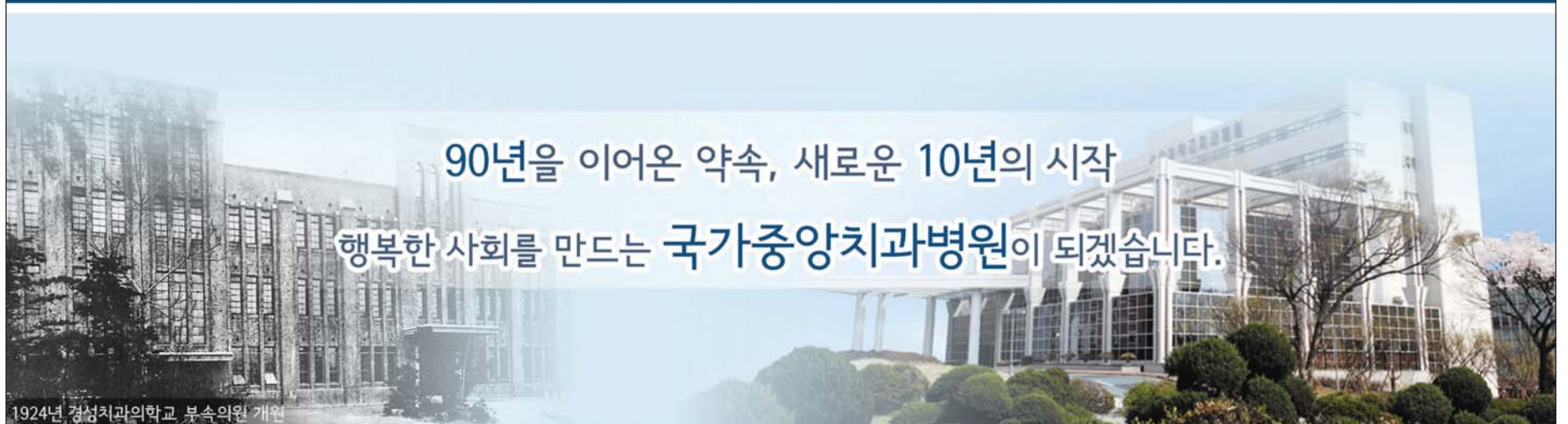
약을 만들기 전에 희망을 먼저 만듭니다!

 **삼천당제약(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내 치과병원 최초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90년을 이어온 약속, 새로운 10년의 시작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국가중앙치과병원이 되겠습니다.

1924년 경성치과대학 부속의원 개원

110-76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대표전화 02) 2072-3114 FAX 02) 745-7798 www.snud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학생회관

포스코스스포츠센터

관악사

박물관

미술관

규정각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우선박(주) 명예회장 **서 정 권** (ACAD 2기)

콩트 릴레이

막걸리

吳世鈞(의학59-65)

정병원 진료원장·수필가



아내의 술 취향이 백팔십도 달라졌다. “내 입엔 포도주가 맞아” 하며 십여 년이 넘게 시종 와인만을 고집하던 아내가 홀연 하루아침에 막걸리 애호가가 돼버렸다.

원래 아내는 술을 못했다. 무더운 여름날,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맥주를 찾으면 지체 없이 대령하기는 하지만 그 쓴 걸 무슨 맛으로 마시냐며 곁에 앉으려 들지도 않았다.

그러던 아내가 중년 들어 대학 동창 모임이다, 아파트 엄마들 모임이다 하며 하루가 멀다고 뻘질나게 밖으로 나돌더니 어느 샌가 사람이 달라져 소주도 제법 하는 好酒淑女가 돼버렸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고

그뿐이면 그래도 들어줍직 하겠는데 이에 더해 “와인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다는 둥, “와인 없는 식탁은 꽃이 없는 봄”이라고 서구인들은 말한다니 어쩐다나 하면서 그럴듯하게 유식을 떨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배달민족의 후예가 맞나 싶게 빨이 시나브로 뒤틀려지기도 했다.

그런 아내에게 돌연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지난 시월, 여고 졸업 오십 주년 기념 여행으로 이박삼일 증도를 다녀오더니 하루아침에 막걸리 마니아로 어마지무 돌변하고 말았다. 사연도 간단했다. 첫날을 몇 몇이 가져온 와인으로 기분을 낸 일행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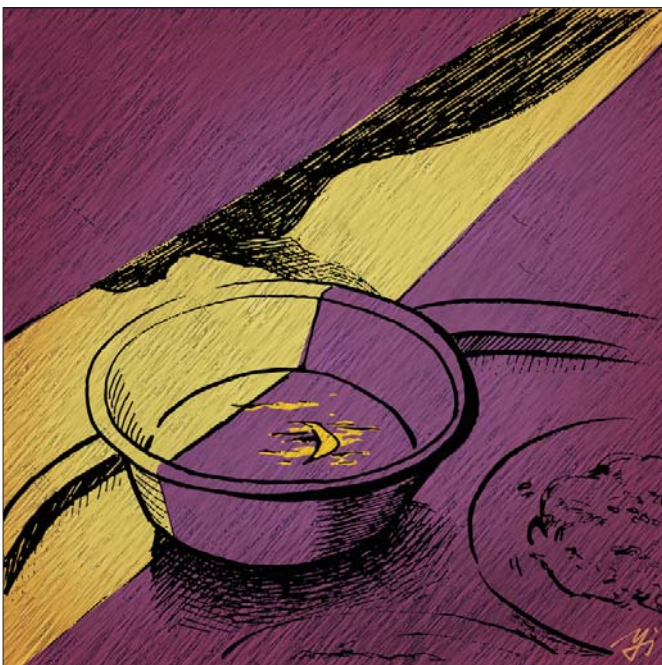
하늘이 두 쪽 난다 해도 결코 발설 못할

나의 이 막걸리에 얹힌 미스터리를

깊은 심호흡으로 뱃속 저 깊숙한 곳에

가라앉혀 놓고 나서야 나는 평시의 얼굴로

아내를 돌아다봤다.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동창회 서무 일을 맡아 하면서부터는 은연중 격상해 이런 저런 술 다 마다하고 오로지 와인만을 마셨다.

명절이나 식구들 생일 때는 물론이요 별 것도 아닌 조그만 일일까지 의미를 붙여 아내는 와인 관(?)을 벌였다. 베란다 창 밖으로 초저녁 비가 추적추적 가스를 적시며 내린다가, 앞 개울가 수양버들이 봄바람에 눈실난실 춤추듯 흔들거린다거나, 모처럼 곤줄박이가 산수유나무에 날아와 빨간 열매를 방정맞게 쫓다거나, 뭐 그런 하찮은 일 따위를 갖고도 아내는 냉장고에서 와인 병을 꺼내 들고 와 나를 거실로 호들갑스럽게 불러내 앉히고는 했다.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었다. 앞산 마루로 해가 누엿이 넘어갈 때면 공연히 슬픈 감정이 든다며 그런 땐 가넷빛이 도는 레프플리스 드 뭐라나 하는 레드와인이 마음을 포근하게 달래준다는 둥, 달무리 진 밤촉수 낮은 백열등 불빛 아래에선 여운 은밀하게 과일 맛이 나는 진한 루비색의 까베넷 프랑이 기분을 한결 아늑하게 풀어준다는 둥 제법 로맨틱하게 사설을 늘어놓으며 제 한껏 분위기를 잡고는 했다.

음날 저녁엔 그 중 두엇의 발의로 막걸리와 티를 열었다. 오늘이 자기가 막걸리를 사랑하게 된 지 팔십팔일째 되는 날이라며 (명백히 고백건대 세상에 하고많은 기념할 날 중에 이런 날이 생길 줄 난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TV 화면 속 창극 ‘춘향’ 공연 녹화 방영에 한창 녀를 빼앗기고 앉아있는 내 앞에 막걸리 술상을 차려 놓으며 그날의 감흥을 녹음기 틀듯 재차 풀어놓는다.

“글쎄 난 막걸리가 그렇게 내 입맛에 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첫 잔부터 벌써 입에 작 달라붙어 혀에 달작지근 감기더라구요. 빗깁도 무뎠해 까탈지지 않고... 와인은 어떨 때 보면 요염하고 매혹적이긴 해도 웬지 도도하고 차갑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에 비하면 막걸리는 꾸미는 것 없이 소탈해서 더 정이 가는, 정말 우리네 술이란 생각이 들어요. 탄산이 많이 섞여서 그런지 시큼한 맛도 거의 안 나고요. 예전 것과는 사뭇 달라요. 안 그래요?”

동의를 구하는 아내의 시선을 관자놀이로 받으며 나는 여전히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바야흐로 사또의 분부를 받들어 한양을 향해 떠나는 이 도령

을 남원고를 밖 五里亭에서 기다렸다 만난 춘향이 한바탕의 뉘트리를 애간장 미어져 내리게 소리하고, 이어 월매가 건네주는 한 소주(寒燒酒)를 이별주로 따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화면에 옛날의 어느 한 장면이 오버랩돼 어른어른 떠올랐다. 주x면의 ‘월매 주점’과 치마폭에 시름한 막걸리 냄새를 은은하게 묻히고 서성이던 주모가 오리정을 배경으로 현실처럼 재현됐다.

월매란 별명의 주모와 사이에 있었던 일, 하긴 자신도 확신 못 하는 해프닝이라 고백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변명하며 비밀로 지켜오고는 있지만 누가 알랴. 우연한 기회에 다른 루트를 통해 비밀이 아내에게 알려지든가, 혹 취해 비몽사몽간에 발설하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감히 장담하랴.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거의 없다고들 하지 않던가. 슬그머니 속이 켠졌다. 혹 알게 되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득히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흘려버리고 말까 아니면? 마침 기회도 좋으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어?

아니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다. 암, 아니고말고, 증거불충분의 확실치도 않은

할 문제들을 담소하듯 논의했다. 한두 식경이 지나 대충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으레 주당 서넛은 정례처럼 이웃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막걸리판을 벌였다.

주점은 저녁시간에만 문을 열었다. 사십이쪽저쪽일까 싶은, 아담한 키에 포실한 몸매를 한 주모는 낮엔 읍내 시택에 가 있다 하고하는 아들을 맞아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난 뒤 들어와 가게를 열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영업을 파했다.

여름한철 텃밭을 가꾸느라 별에 그은 일굴에 보조개를 파며 주모는 손님 누구라 할 것 없이 웃으며 맞았다. 단골이고 자시고 가 없었다. 그렇다고 수다를 떨거나 나부대는 편도 아니었다. 손님상에 끼어 앉아 대작하는 때도 월매가 아니라 향단이처럼 새물새물 웃기만 했다. 가끔 재미난 농담에 웃을 때면 실낱 눈썹 아래 반달눈이 초승달로 감겼다. 그래도 주모의 최상 매력 포인트는 역시 가슴이었다. 탁상에 몸을 숙여 음식을 차릴 때 언뜻 저고리 쇄 사이로 보이는 살품이 그렇게 매초를 뽐낼 수가 없었다.

과경근무를 10여 일 남긴 2월 중순, 그간 정이 들대로 들었던 마을을 떠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울적해졌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주점으로 향했다. 해는 아직 한 뼘이나 남아 있었다.

안방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던 주모가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 호들갑을 떨며 반색해 맞았다. 불빛 아래 내 얼굴을 본 주모가 웬일로 피부가 그리 까칠하냐며 대뜸 소매를 잡아끌어 불문곡직 경대 앞에 앉히더니 갑자기 누이라도 된 듯 자기가 바르던 크림을 손가락 끝으로 떠내 내 이마, 양뺨, 코, 턱에 찍어놓고는 찬찬히, 부드럽게 문질러 넓게 펴 발라줬다.

그날, 온 저녁내 나는 안방에 따로 앉아 막걸리를 한 말이나 되게 들이켰다. 어느 사이 서창에 뒹던 초승달도 지고 밤은 철쭉처럼 깊어갔다. 왜 손님은 그날따라 아무도 들지 않았을까. 어이없어라. 정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도 훨씬 지나 창으로 햇살이 가득 비쳐들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식어 차디찬 해장국이 소반 위에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불을 걷고 옷매무새를 살펴보았지만 어제 입은 그대로 딱히 흐트러진 곳은 없었다. 정녕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마을을 떠나기 전날 있던 송별연 자리에서도 주모는 태연하기만 했다. 낚새를 쫓만한 별다른 표정을 지어보이지도 않았고 비밀을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에만 통하는 고 달콤하고 은밀한 눈길도 건네지 않았다. 평소나 다름없이 웃고 다름없이 말했다. 나 또한 그날 밤 기억을 더듬어도 도무지 어렵듯 아슬푸레하기만 했다. 약간 거칠고 통통한 손가락을 주물럭거린 것도 같고, 저고리 쇄에 꼬꾸라지듯 얼굴을 파묻고 고 배리한 땀 냄새에 반쯤 혼절한 것도 같고, 덤덤하게 마주 앉아 애꿎게 술잔만 비운 것도 같고.

이제자고 나는 그날 밤 혼자인 걸 기화로 안방에 누긋하게 자리 잡고 앉아 호기롭게 말술을 들이켰을까. 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 주모를 본 첫 순간부터 내 가슴은 나도 모르게 끓었던 걸까. 주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까. 떠나오며 써놓고 온 내 유치한 시를 정말 액자에 넣어 걸어놓고 초승달 애투하던 그 밤을 떠올리고 있을까.

동 정

수 상

▲姜信盛(영문55-60 前駐칠레 대사·소설가)=지난 1월 20일 한국소설작가협회로부터 제5회 한국소설작가상 수상.

▲沈勳鍾(법학56-60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지난 12월 5일 서울 중앙고교우회 정기총회에서 2014년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

▲金文鉉(상학58-64 대일씨애티 회장)=지난 12월 19일 서울 고동창회로부터 2014년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黃光雄(토목공학59-63 건화 회장)=지난 12월 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의 최고경영인상(글로벌경영 부문) 수상.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지난 1월 22일 한국농민문화회로부터 제22회 한국농민문화상 수상.

▲李鍾熙(전기공학67-71 모다정보통신 회장)=지난 1월 26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11회 일진상 수상.

▲權五甲(금속공학68-75 한국기술경영연구원장)=지난 1월 26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11회 일진상 수상.

▲金仁權(의학69-75 여수 해양병원장)=지난 12월 19일 서울고동창회로부터 2014년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李廷鎔(재료공학70-74 KAIST 교수)=지난 12월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4년도 한국공학상(재료 분야) 수상.

▲南宮權(정치72-76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지난 12월 13일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국제대학원의 '2014년 동문상' 수상.

▲河英源(법학79졸 서강대 교수)=지난 12월 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의 최고경영인상(최고경영학자상 부문) 특별상 수상.

▲方承燦(전자공학80-8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12월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4년도 한국공학상(통신 분야) 수상.

▲林惠淑(제어계측82-86 이화여대 교수)=지난 12월 16일 제14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

▲元喜龍(공법82-89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지난 12월 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의 최고경영인상(가치경영 부문) 수상.

▲姜珍九(사회86-92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기자)=지난 2월 10일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제46회 한국기자상 수상.

▲洪鍾植(AMP 47기 금전기업 사장)=지난 12월 23일 제4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품질경영 부문) 수상.

▲金正子(AMP 56기 유진기공업 대표)=지난 12월 22일 제18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鄭相基(AMP 56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지난 1월 23일 제14회 대한민국 펀드대상(종합 대상) 수상.

▲韓相範(AMP 68기 LG디스플레이 사장)=지난 12월 5일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금탑산업훈장 수훈.

▲金椿鎭(AIP 14기 국회의원)=지난 12월 9일 한센인의 인권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許 燁(AIP 41기 한국남동발전 사장)=지난 12월 16일 한국제안활동협회가 제정한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공기업 부문) 수상. 또 23일 제4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창조혁신 부문) 수상.

▲李建植(ACAD 29기 전북 김제시장)=지난 12월 23일 제4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미래창조경영 부문) 수상.

▲姜太善(ACAD 72기 블랙야크 회장)=지난 12월 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의 최고경영인상(브랜드경영 부문) 2년 연속 수상.

▲金鎮文(HPM 2기 신성약품 회장)=지난 12월 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의 최고경영인상(고객만족경영 부문) 수상.

▲최호식(AMPFRI 30기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지난 12월 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의 최고경영인상(상생 경영 부문) 수상.

▲趙享泰(GLP 5기 녹십자 부회장)=지난 12월 5일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금탑산업훈장 수훈.

▲李成洛(ALP 10기 신한생명 사장)=지난 12월 1일 금융인 송년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금융대상 생명보험 대상 수상.

▲文薰淑(ALP 12기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지난 12월 1일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로부터 제7회 공연예술경영상 대상 수상.

▲魏聖昊(ALP 15기 신한카드 사장)=지난 12월 1일 금융인 송년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금융대상 여신금융대상 수상.

▲徐辰源(AFP 5기 신한은행장·본회 부회장)=지난 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년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제24회 다산금융상 대상 수상.

▲金政南(AFP 10기 동부화재 사장)=지난 12월 1일 금융인 송년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금융대상 손해보험 대상 수상.

▲張周鈺(AFP 12기 한국동서발전 사장)=지난 12월 16일 한국제안활동협회가 제정한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공기업 부문) 수상.

▲盧運夏(AWASB 1기 파나소닉 코리아 대표)=지난 12월 2일 한국의 최고경영인상(사회공헌 경영 부문) 수상. 또 23일 제4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지속가능경영 부문) 수상.

인 사

▲李明載(법학61-65 前검찰총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지난 1월 23일 대통령 민정특별보좌관에 임명.

▲玄定澤(경제67-7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지난 1월 23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임명.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만남이 아니라 결혼이다.
느낌만으로는 모르는 일.
조건만으로도 안 되는 일.
누가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
사람을 알아야 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는 일.

결혼해두세요

• 국내지사 서울/수원/인천/천안/대전/전주/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 • 해외지사 뉴욕/LA/뉴질랜드

메듀오 1577-8333

▲夫龜旭(법학70-74 前한국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영산대 총장)=지난 1월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1대 회장에 선임.

▲朴泰鎭(경제71-75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지난 1월 14일 사단법인 국제공정 무역학회 회장에 취임.

▲黃永基(무역71-75 前우리금융지주 회장·前 KB금융지주 회장)=지난 1월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대 회장에 선출.

▲尹炳挽(토목공학77-81 명지대 교수·한국방재협회 이사)=지난 1월 16일 한국수자원학회 제25대 회장에 선임.

▲金聲宇(불어교육77-82 SBS 기획본부장)=지난 1월 23일 대통령 사회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

▲趙 晨(경제77-82 前SK브로드밴드 사장·연세대 교수)=지난 1월 23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에 임명.

▲金敏鎭(경제78-82 前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국제국장)=지난 1월 15일 한국은행 부총재보에 임명.

▲金命振(조경78-84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지난 1월 29일 임기 3년의 국제영향평가학회 이사에 선출.

▲柳鍾必(철학78-85 서울시 관악구청장)=지난 1월 8일 전국 1백31개 시군구와 75개 교육지원청이 소속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禹柄宇(사법84-88 前인천지검 부천지청장·청와대 민정비서관)=지난 1월 23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

▲丘冀盛(행대원89-95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1월 5일 국회 입법차장(차관급)에 임명.

▲金大鉉(HPM 30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1월 5일 국회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

행 사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2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신년회 개최.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서울문우회 회장)=최근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가모임을 갖고 2015년 신춘

문에 당선작가 시상.

▲金亨圭(기악60-64 한양대 명예교수·피아니스트)=지난 1월 14일 한국·러시아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그레이트홀에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콘서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월 29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새로운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시행규정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郭柄善(교육66-70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장)=지난 1월 2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 총회 및 이스라엘의 밤 행사 개최.

▲高周夢(철학68-75 중국 장안대 객좌교수, 국제남명학회·국제증전철학회 공동회장)=지난 1월 4일 모교 문리대 遺地 마로

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남명철학과 증전철학' 국제학술회의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2월 30일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중 FTA 虛와 實'을 주제로 특강.

▲朴鍾圭(응용미술69-73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소설가)=지난 1월 5일 두 번째 수필집 '꽃섬'(폴리곤커뮤니케이션즈刊) 출간.

▲金炳宗(회화74-81 모교 동양화과 교수)=지난 1월 31일부터 3월 9일까지 중국 베이징 진르(今日)미술관에서 '生命之歌'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李相起(서양사화81-87 아시아 N·매거진N 대표·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26일 국방부(장관 韓民九)와 2015년 정기간행물(매거진N) 납품계약 체결.

▲朴해진(기악93-97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비올리스트

김지연(기악96-00)동문, 피아니스트 서지수(기악00-04)동문 등과 함께 파시오네 피아노 콰르텟 창단 연주회 개최.

▲金亨宣(기악96-00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3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하인리히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 아르칸젤로 코렐리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김상원(기악01-05 피아니스트)=지난 2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소나타 작품

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윤은규(기악02-06 바이올리니스트)=오는 2월 22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브람스, 라벨 등의 작품으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김현서(기악03-07 첼리스트)=지난 2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 ▲鄭一永(정치47-51 前국민대 총장)=1월 19일 별세(89세)
- ▲文相翼(법학49-54 前수원지검장)=1월 11일 별세(86세)
- ▲宋柱仁(정치50-58 前전북은행장)=1월 26일 별세(86세)
- ▲韓弼享(물리57-60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1월 25일 별세(82세)
- ▲鄭恒詩(교육심리60-64 前상문고 교장)=1월 11일 별세(77세)
- ▲金敬信(체육교육62-66 前정주대교수)=1월 4일 별세(72세)
- ▲朴三奉(법학75-79 사법연수원장)=1월 22일 별세(59세)
- ▲成平健(AMP 25기 前삼성종합화학 사장)=1월 14일 별세(73세)
- ▲金澈運(AMP 33기 前한국물가협회장)=1월 5일 별세(81세)
- ▲金敎文(ACAD 29기 前감사원 감사위원)=1월 21일 별세(82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전용상담 02-3445-2557)



친절하고 편안한 무료상담
1577-2050
www.noble.co.kr

고품격 노블레스 No.1

전문직/엘리트/상류층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본사(압구정) · 부산지사(해운대 센텀)
미국동부(뉴욕, 플러싱, 맨하탄) · 서부(LA)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수상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수준 높은 이성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회원제
- 프로필 안심보증제-프로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개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0-18 성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8호

www.uvcon.com

Powerful Solutions for Vibration Problems!!

유비콘을 만나는 순간, 원자력 관련 기기검증 및 어떠한 진동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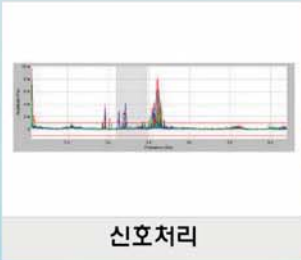
원자력기기검증

-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
- R&D of Nuclear Equipment



소음진동제어

- Plant Vibration
- R&D of Industry Equipment
- Seismic Qualification
- Environment Sound/Vibration



신호처리

- Automated Product Line Testing
- Software Development
- Product S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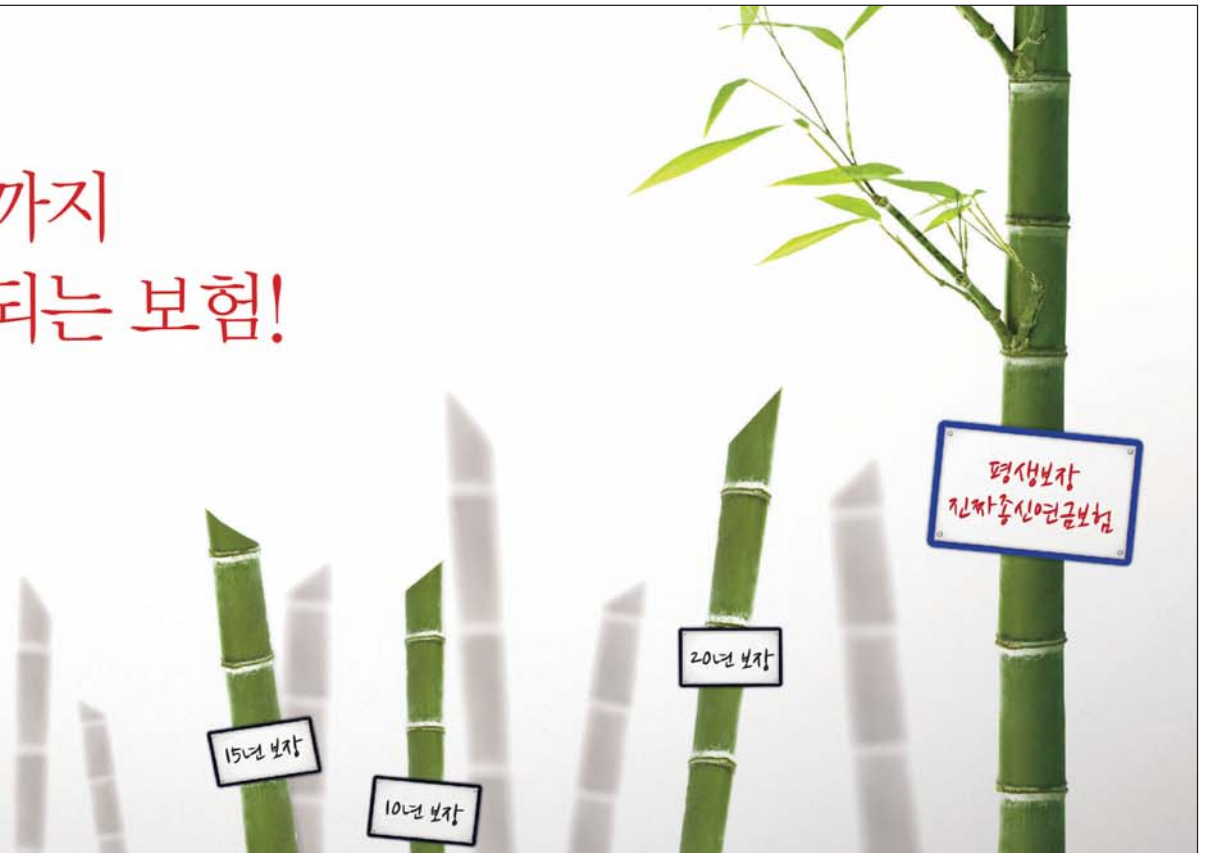
(주)유비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 형 식 (토목공학 70卒)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ITECO 444호 TEL : 02-539-3639 / FAX : 02-539-3638

100세 시대 종신까지 오~래오래 보장되는 보험!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연금보험이 정답입니다

노후는 길어지는데 보장받는 기간은 겨우 5년, 10년?
한 번 가입으로 평생가는 종신연금보험과 만나세요.
생명보험사 종신연금보험이
당신의 100세 라이프와 끝까지 함께 합니다.



www.sbshope.co.kr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 SBS가 꿈꾸는 내일입니다

밝은 세상을 만드는 나눔 문화,
SBS가 만들어 갑니다

SBS는 1990년 창사 이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고
희망을 전파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갑니다'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을
사회공헌활동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희망TV SBS>의 아프리카 희망학교 / 의료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미래한국리포트> <서울디지털포럼> <올해의 작가상> <물은 생명이다>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BS는 정부와 NGO, 시청자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지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우리 이웃에게 내일의 희망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소통의 임무'를 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내일을 밝힙니다 SBS



신 간

■ 치매 자살 이렇게 막아라!
— 李阜卿 지음



BK건강과 학연구원 李阜卿(농학50-54) 원장이 한국교회신보에 10년간에 걸쳐 연재해 온 건강 칼럼들을 수록한 책. 이 책은 ‘치매, 100% 완치될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이다’, ‘거짓말처럼 사라진 당뇨병’ 등 3부로 나눠 치매와 자살의 원인과 그 치료법,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수기 등을 담고 있다. 李동문은 이 책에서 치매와 자살은 두뇌의 산소 공급 축진법으로 치료하면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평양저널刊·값 13,000원>

■ 나의 외교 노트
— 孔魯明 지음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원로 외교관이자 대한민국 외교의 ‘산 증인’인 동아시아재단 孔魯明(법학 51-61)이사장이 李承晩에서 朴正熙까지 한국 외교사를 자신의 눈으로 답답하게 기록한 책. 孔동문은 1958년 외무부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1996년 11월 외무부 장관을 사임할 때까지 38여년간 우리 외교의 현장을 보고 듣고, 몸소 겪어왔다. 퇴임한 후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동국대, 한림대, 동서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그 후의 우리 외교의 발자취’에 관해 강의를 했다. 이 책은 크게 5부로 나누어 있으며 ‘해방, 혼란 그리고 분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4·19혁명과 민주당 정권’, ‘박정희, 부국건설의 빛과 그림자’, ‘요동치는 한미관계와 박 대통령 시해’ 등을 수록하고 있다. <기과광刊·값 16,500원>

■ 해 저문 날의 독백
— 鄭鎬暻 지음



여수수필 문학회 회장을 지낸 鄭鎬暻(국어교육 52-56)동문이 ‘하늘’, ‘바다’, ‘밀물’,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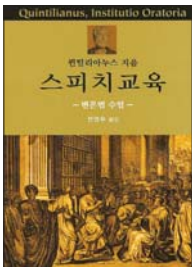
‘꽃잎’, ‘썰물’ 등 6개 주제별로 모은 수필집. ‘하늘’과 ‘구름’에 들어 있는 글들은 종래의 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글들이고, ‘바다’와 ‘밀물’에 들어 있는 글들은 종래의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개의 이야기를 묶어 구성한 저자 나름의 실험적 형식의 글들이다. ‘꽃잎’에 들어 있는 글은 여수동부매일신문 박완규 대표의 수필집에 붙인 추천글 세 편을 모아 묶었으며, ‘썰물’에는 우리나라 각 수필전문지에서 기획한 ‘원로와의 만남’의 글을 그대로 실었다. <다름과이름刊·값 16,000원>

■ 정신건강 이야기
— 李符永 지음



분석심리학자인 동시에 신경정신과 전문의이며 모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가르쳤던 한국웅연구원 李符永(의학52-59 모교 명예교수)원장이 정신의료 관련자들뿐 아니라 환자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위해 쓴 정신건강에 관한 계몽서. 이 책은 개정증보판으로 초판의 근간을 유지한 채 그동안 바뀐 용어나 진단분류를 반영하고 새로운 지견을 포함했으며, 현 시대의 사회병리에 관한 진단과 대처를 새롭게 보완했다. <집문당刊·값 16,000원>

■ 스피치교육
— 全英雨 옮김



2천 년 전 마르쿠스 파비우스 퀸틸리아누스가 지은 ‘변론가의 교육’ 전 12권 가운데 1~3권을 수원대 全英雨(국어교육53-57)명예교수가 번역해 출판했다. 이 책이 단지 직업적 변론가 양성에 머물지 않고, 유아교육을 포함한 초등교육까지 고찰하고 있는 것은 집필을 시작할 시점에 퀸틸리아누스가 자기 아들들의 교육을 염두에 뒀다는 사실의 증거일 것이다. 또 이 책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에 걸쳐 고전의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은 그 내용이 자기 아들을 포함, 오래도록 젊은이 교육에 힘써 온 퀸틸리아누스 자신의 경험이 뒷받침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민지사刊·값 15,000원>

■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 李大徹 지음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을전리에서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李大徹(임학63-67) 동문의 난방 없이 한겨울 영상 20도를 유지하는 거짓말 같은 집 이야기. 건축비가 너무 비싸 현실성이 떨어지는 유럽형 패시브하우스와 달리, 李동문의 오랜 학습을 바탕으로 일반인에게 실현 가능한 비용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소개한다.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든 배경부터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기본조건과 설계과정, 앞으로의 李동문의 꿈들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골생활刊·값 16,000원>

■ 나의 하늘정원
— 李泳南 지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에 재학 중인 충북대 李泳南(약학64-68)명예교수의 수필집. 이 책은 ‘배꽃 향기를 찾아가는 길’, ‘나의 하늘정원’, ‘테티스 호수에서 맛본 기쁨’, ‘행복했던 나들이’, ‘무수옹 흉내내기’ 등을 주제로 50여편의 수필을 담고 있다. 李동문은 표제작 ‘나의 하늘정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허용되고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내 것이 인정돼야 하듯, 남의 것도 인정하는 사회가 좀 더 건전하고 발전된 사회”라고 적고 있다. <지성의샘刊·값 12,000원>

■ 낙엽 위에 서린 우수
— 鄭大秀 지음



소설가 鄭大秀(신대원 67-70 필명 정다운)동문이 산골에서 직접 자연과 부딪치면서 자연 사랑과 친환경, 노후인생과 관련된 작품들에 초점을 맞춰 펴낸 소설집. 이 책은 환경 문제,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 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역전의 예수’, ‘낙엽 위에 서린 우수’, ‘호수마을의 곡소리’, ‘춤추는 농심’, ‘노교수가 사는 법’, ‘한 노인의 가솔적 반항’ 등 저자가 작가적 소명에서 다루는 다양

공연

■ 鄭玲安 첼로 독주회
— 2월 28일 예술의 전당



평택대 음악학과 鄭玲安(기악92-96)교수(사진)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악원, 취리히 국립음대를 졸업한 鄭동문은 이날 바흐, 카사도, 포퍼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채유미 바이올린독주회
— 3월 7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채유미(기

악87-91 상명대 교수)동문(사진)이 3월 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채 동문은 이날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 프란츠 슈베르트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이든예술기획 6412-3053>

■ 金紋廷 콘서트 II
— 3월 10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金紋廷(기악89-93 동덕여대 교수)동문(사진)이 3월 10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프리토크가 있는 콘서트를 연다. 金동문은 러시아의 샤프페테르부르크심포니, 체코의 마르티누 팔하모니와 협연으로 러시아와 체코 현지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연문의: 이든기획 6412-3053>

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어刊·값 13,000원>

■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
— 田宅秀 외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 田宅秀(사회교육71-78)교수, 성균관대 金在範(경영82-86)교수, 추계예대 朴憲實(산업미술84-88)교수, 숙명여대 昌炳模(전자계산84-88)교수, 모교 교육학과 申宗奭(교육86-90)교수 등이 창의경제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제시한 책. 이 책은 그동안 선진국의 경험에 따라 문화예술 창의성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필진은 “이 책에서 제시한 창의경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장기적 방향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刊·값 23,000원>

■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 權寧珉 지음



모교 국어국문학과 權寧珉(국문71졸)명예교수가 한국계급문학운동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체계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정리해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일본 식민지시대의 계급문학운동이 민주사회운동과 어떠한 조직적 연관성을 지니고 전개됐는가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의 부록으로 계급문학운동사 연표를 작성하고 중요 작품 목록을 함께 수록했으며, 계급문학운동과 관련된 문인들의 약전을 소개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54,000원>



국내 초음파 관련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

전자동 세정장비



초음파 진동자



산업세정Unit



Speedliner



고주파 Generator



반도체 WAFER 세정Unit



FPD 세정Unit



- 초음파 기술노하우 확보(25년)
- 반도체, 휴대폰, LCD 세정의 선두기업
- 삼성, LG,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Canon, Konica, Hoya 등 세계 유수의 Maker에 세정장비 공급
- 매출 10% 이상 R&D투자



대표이사 이 희 명(GLP26기) (주)듀라소닉 TEL. 031-684-5489 FAX. 031-684-5490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중앙로 578-13 (<http://www.durasonic.com>)

생산자와 소비자의 마음을 잇는 완주로컬푸드 흥남포 스테이션

Localfood is Life

➔ 생산자의 얼굴을 보고 산다면 믿을 수 있겠지요?

농가에서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공간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상관 요원마을 박영섭농가의 로컬푸드 출하과정

1. 출하할 농산물 스프링
2. 물건 싣고 직매장 이동
3. 물건을 가격표 부착
4. 직매장 판매장에 물품 진열

➔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 드셔보실래요?

우리 농촌에서 즐겨먹던 농촌 전통 밥상을 발굴, 복원하여 메뉴화하고, 여기에 사찰음식을 결합한 피가되고, 살아있는 건강힐링밥상을 제공합니다.

➔ 정채봉명의 먹거리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정채봉명의 가공품은 우리 마을을 생동케 합니다. 지역산 원료로 가공센터에서 농민이 직접 가공한다면 믿을 수 있겠지요? 재료가 신선해서 더 맛있습니다.

생산자(농촌) + 소비자(도시) = 도농상생



용진 직매장 063-243-7062 효자동 직매장 1600-0125 모악산 직매장 하가지구 직매장 063-902-5760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4년 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8. 3~2015. 1. 26) · 일반 (2014. 8. 3~2015. 1. 26)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 총동창회비 납부 계좌 (성명과 입학연도 기재)
농협 079-01-442414 / 신한 140-001-180304 / 우리 1005-401-137376 / 국민 827-01-0248-009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snua.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회 장 단

△부회장 孫吉丞= 1백만원
△부회장 玄敬大= 1백만원
△부회장 黃祐呂= 1백만원
△부회장 金仁圭= 1백만원

상임이사

△金靑弼 자연대동창회장= 20만원
△金載學 공대동창회장= 20만원
△沈文圭 관악무역인회장= 20만원
△文炳昌 ALP동창회장= 20만원
△鄭 哲 ASP동창회장= 20만원
△崔順泰 FNP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상두 사대94
△김신영 자연74 △김영철 FIP9
△김재선 HPM29 △김형원大院81
△박광주 SPAR23 △박인욱 농대84
△서정락 AMP74 △송혁준 인문81
△신준환 ASP24 △양강현 법대84
△엄철현大院00 △윤근환 농대50
△이경태 AMP31 △이승재 사대71
△이응우 공대64 △이장환 자연85
△이형기 인문91 △이회영 농대74
△이효진 AIP15 △임용택 농대54
△장효상 SPAR11 △정경인 GLP13
△정진욱 사회93 △조재호 GLP23
△최정우 공대84

(일반) △공용택 자연87
△곽인환 ACPM10 △곽정근 공대83
△권기대 FNP6 △김대현 사회08
△김명성 사대57 △김순웅 수의대92
△김시연 생활07 △김연희 사대79
△김영국 경대82 △김용태 사대51
△김은미 FNP2 △김의식 공대93
△김인기 사대77 △김재봉 공대69
△김정철 AMP77 △김종대 사대80
△김진호 의대96 △김한중 APC20
△김해근 경영79 △김현경 사대84
△김홍일 AMP77 △남재철 농대79
△노경수大院81 △노병용 AMP76
△노순주 문리59 △류지훈 FNP1
△문영식 상대51 △민숙영 사대64
△박상준 농대72 △박성규 법대77
△박순명 공대55 △박승빈 공대73
△박아란 경영97 △박영배 의대67
△박인구 법대98 △박정미 사회00
△박종용 사회77 △박혜영 생활07
△박혜정 AMP76 △배종무 사대53
△서동일 음대70 △서형미 자연83
△서혜숙 음대83 △성현주 농대78
△손찬호 치대70 △손춘자 사대69

△신승현 자연82 △심승호 AWAS1
△안윤진 가정89 △양승학 AWAS1
△오대균 공대81 △우현기 문리67
△유승웅 공대60 △윤성만 약대69
△윤효수 사범58 △이건원 문리63
△이계정 공대86 △이광복 사범65
△이기열 인문76 △이남호 농대78
△이병권 농대77 △이삼우 상대52
△이상구 공대81 △이상철 AIP13
△이석주 농대64 △이성철 농대83
△이용준 사대82 △인병선 문리54
△장민호 공대02 △전병열 ACAD77
△전윤애 의대85 △정근모 문리55
△정동운 공대64 △정현국 법대56
△조남산 공대63 △조병희 사회73
△조성민 融院12 △조재화 의대10
△진우성 농대96 △진웅섭 行院87
△진종필 농대48 △차송현 공대08
△치원전 AMP77 △최규남 공대76
△최명종 사범56 △최재영 공대80
△홍경자 가정58 △홍정희 미대53
△황우석 수의72

이 사

◆인문대 △김경일76 △김덕수83
△김병철76 △김영희88 △김원환81
△노성환82 △류규현91 △박종덕74
△오세구72 △유기홍77 △이숙희80
△이양재75 △정성희82 △정세용72
△추희엽83
◆사회대 △고영일84 △김경용91
△김기령75 △김영섭81 △김찬동84
△김현성88 △김희원89 △노창현81
△박민식84 △배지우87 △안근배81
△유두선83 △이계성77 △이상원79
△이원백84 △이준우92 △임 철75
△임주현79 △전승철81 △조태형88
△조현진85 △진수홍86 △최완근81
△홍승원82
◆자연대 △김성기77 △김철호74
△민영철74 △박윤경83 △양병룡74
△이 건73 △이 식85 △이상영75
△이영근69 △이용학74 △이종섭73
△이준영81 △이태립77 △임완중87
△전성준81 △정 황72
◆간호대 △남은숙75 △박상연68
◆경영대 △강민선83 △권기출72
△김상규86 △김선구73 △김종현94
△김종훈86 △김홍준76 △박용환72
△박종완71 △서동규84 △성열우77
△안철환88 △윤훈수83 △이현철83
△조승호81 △최대봉88 △하형석87
△허승호79
◆공대 △강순옥53 △강창렬79
△곽정석50 △구본현73 △권용수81
△권정태84 △김덕우81 △김덕재54
△김덕재54 △김동표81 △김문경61
△김석준69 △김선복62 △김성태53

△김순영95 △김웅범70 △김은영56
△김재익69 △김정선81 △김종술66
△김종열78 △김종찬54 △김태환66
△김호수63 △남용민71 △남일순81
△문영기69 △문찬국73 △박기현74
△박두곤53 △박수안72 △박영복63
△백형배47 △부장렬77 △서동원70
△서영수86 △서정만64 △송준환62
△심이택57 △안상록68 △안용수73
△양준모85 △양화섭78 △유승준63
△윤용균81 △윤조덕69 △이건우74
△이경재81 △이국노80 △이남순72
△이연주93 △이윤기78 △이종우86
△이종훈55 △이현식88 △이희웅73
△정금영77 △정성민61 △정재영70
△정종산72 △정현일60 △정형수59
△조규남72 △조두현76 △조영진76
△조장현64 △주기태69 △지인호76
△차석주81 △최병홍78 △최삼민64
△최몽진84 △최홍섭78 △하태흠75
△한덕원93 △한영철69 △허대기71
△홍민표74 △홍성철87 △황규백93
△황규승64
◆농대 △강경하74 △강원봉77
△공민영05 △곽영철59 △권오진52
△김광호61 △김상호56 △김상환88
△김장섭84 △김진균71 △김훈동63
△남현석81 △노영성74 △명유재83
△목세균63 △문양수82 △민원동65
△박동호74 △박선현71 △박순흥85
△박찬구87 △박한수82 △서기호60
△서성원93 △성기홍82 △송기철74
△오영환71 △원종영62 △유부열66
△윤경섭65 △윤성원72 △윤여창53
△이건일60 △이덕록72 △이우종81
△이원민75 △이준원81 △이창구66
△이창규73 △이학재83 △이형주77
△임성만84 △임진득74 △장길완82
△장세영57 △정연택83 △주민영88
△최승호83 △하영주83 △홍성표56
◆문리대 △구봉화62 △권민웅62
△권혁방65 △김상하45 △김성중61
△김찬근69 △김하진58 △김홍철60
△노영식74 △노태돈67 △류성희61
△류종탁56 △문현석66 △박기덕70
△박하진67 △박혜란65 △박홍식66
△성민선64 △송대성69 △송진혁61
△송창범71 △오병남59 △오종발68
△원용대48 △유정열52 △이상근55
△이영훈64 △이종환62 △정규수63
△정병일62 △정태철55 △조용직60
△채영수68 △최상규63 △최준기69
△한기호57
◆미대 △권영결69 △김제응60
△김종선74 △성기점58 △신현장65
△이영진54 △장채일78 △조성애64
△한진성77 △한형석91 △현지연93
△홍현중04
◆법대 △강현안74 △강효상81

△권동렬59 △권순민89 △권오윤56
△김 숙69 △김 훈85 △김석영51
△김석재88 △김신택57 △김영학83
△김인겸82 △김정근76 △김정학71
△김하남49 △노경래61 △박상일77
△박수복77 △박윤훈55 △박종태84
△박준서59 △박태석77 △박태훈66
△배성진89 △서복현76 △송경숙91
△송재양77 △송진현71 △신영수70
△신정철52 △심우찬02 △오동근87
△우병우84 △유종해50 △윤경희65
△이교립73 △이동춘59 △이성로64
△이세형68 △이승철81 △이재근82
△이재인93 △이충범78 △이현목78
△전수진86 △전수철63 △전용학73
△정기용77 △정연욱85 △정해방69
△정호영66 △조용준79 △조해현81
△차찬성72 △한덕수55 △허영범88
△현홍주59 △황선태66 △황영하58
◆사대 △강경돈70 △곽형기71
△김경애74 △김광수72 △김기광64
△김남훈73 △김승재71 △김영화83
△김종훈79 △김창선61 △김홍섭73
△남창렬65 △노갑기66 △노재영91
△민무일65 △민진호87 △박남기50
△박대영80 △박명학61 △박병익74
△박세원70 △박태섭76 △박형준60
△박홍일60 △서정선60 △승만호76
△신용래52 △신종호86 △안재석86
△안지원81 △안희수61 △오창훈83
△원혜영71 △유경근58 △이계현72
△이동호59 △이명희79 △이오봉61
△이재혁63 △이정식72 △이호준60
△임길선83 △임창선72 △장종택55
△정광삼58 △정선영63 △정운근71
△정하경76 △제옥례33 △채미영82
△최돈형68 △최태상53 △한준수76
△한희숙82 △함오연67 △형남규67
◆상대 △구용서60 △김덕기52
△김영식66 △김종호54 △김태겸70
△김태두50 △박병준51 △박상은55
△박성석61 △백정기71 △석학진58
△송병락59 △신양우70 △심정구53
△엄치섭53 △윤영원55 △이계문70
△이광수50 △이남수62 △이승섭50
△이용휘57 △이환철54 △장윤문65
△전병운70 △조문규57 △최기동70
◆생활대 △류국영84 △윤기숙68
△조성교69 △조정애57
◆수의대 △곽기종55 △김경환80
△김승중69 △김운수74 △김창수64
△남기용74 △박영혜82 △송도영78
△오효성77 △이강문60 △이금주83
△이상민48 △이진수71 △임영철74
△장광호75
◆약대 △김기술71 △김영길61
△김정희57 △남승국70 △백성기59
△송창진54 △오성환60 △우재남69
△윤여표76 △윤웅찬68 △윤효선53

△이강현75 △정경호77 △조용현74
△주승재86
◆음대 △강주령83 △김숙이73
△김순화70 △김은경94 △김홍식73
△박정욱78 △송지윤84 △송태균65
△신정혜77 △이경미79 △이선이84
△이승현87 △이오규70 △이유희68
△이종길85 △이준복68 △최덕천75
△최성희80 △최영택74
◆의대 △강홍모70 △고건성67
△김동진68 △김수경81 △박용수85
△박총학71 △백태진74 △유병철71
△유재란82 △이정길63 △장경만80
△전형식81 △정경태53 △정두용73
△정영덕70 △정주영84 △정필현82
△한덕종69 △한진희71 △한홍무56
△홍성출89
◆치대 △김경원70 △김기달74
△김명효75 △김상철73 △김형욱82
△박종만60 △박종차62 △변석두53
△송명욱86 △신정훈65 △양수정83
△양일수73 △양재희55 △오경훈71
△오세웅90 △우원희73 △이병우76
△이영대70 △이재봉70 △이재성58
△이종호79 △이창우91 △이호정86
△장은식89 △조형작64 △주광섭73
△진기열77 △최양근81 △한성희92
△황의강61
◆대학원 △강우식83 △김경남84
△김상복98 △김선대84 △김진경93
△문두길87 △문재석80 △박동준80
△박명호76 △박용수81 △선양국85
△우은주78 △이범수85 △이병갑75
△이은성83 △지충수71
◆경대원 △강희경71 △김선대72
△신인철68 △이병재69 △이종렬88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김덕성71 △김병환65
△김종오79 △문성환95 △이형구91
△최성원86 △최영아74
◆신대원 △김기도72 △안병찬71
△이근수67
◆행대원 △김선태90 △김영화68
△유금록78 △한동범81
◆환대원 △권 완76 △박경자76
◆AMP △고윤재20 △김상훈68
△김세래46 △김영섭75 △김택동68
△사재훈74 △서상노73 △서효중3
△신명철8 △안종표36 △양성욱1
△왕기철42 △유재천31 △이경태31
△이병성2 △이상주70 △이재환48
△이정식13 △이정훈54 △이주현45
△장명웅40 △정건택21 △정형택6
△조성명75 △최병석75 △한원규75
◆AIP △고순란47 △김석환30
△김원배19 △김인수10 △김정만41
△문규원10 △박한창17 △신현필13
△유영원17 △이두평8 △이용수22
△이정열46 △이충언14 △정방언48
△최득호48 △최용길22 △최원태26
△홍성철34
◆ACAD △권도중49 △김영길49
△서정민18 △신은우56 △신현대31
△안창돈76 △안희수11 △유용근38
△유현규74 △이관범20 △이상영40
△이재복21 △이종식73 △정민근62
△정재호76
◆ABP △김선제9 △김원태5
△류광하7 △박현철10 △이재호40
△정시택23
◆SGS △김관욱18 △김두철3

△송두영22 △안기석10 △이강웅23
△이상표28 △이종원17 △정해순15
△황용연2 △황종현18
◆APC △강대가4 △김경수10
△배병현11 △양종대15 △정현종9
◆HPM △김은혜28 △김재선29
△김재중22 △박보경23 △배종성27
△선덕남4 △성치용4 △엄금란14
△이구봉29 △이승열29 △조동순27
△주영진2
◆AMPP △김인신6 △유병무11
△이경재6 △최종식6 △하영수2
◆AIC △김정구3 △남호연4
△류진국1 △박경숙8 △서 훈28
△신철화22 △이한범33 △조강연30
◆AFB △곽 후10 △이원기12
△허우형9 △홍경래11
◆AMPFRI △김경호20 △김정훈1
△박용철4 △송희수20 △안재팔30
△유승배20 △이병윤26 △이유인7
△최호식30
◆ACPM △남순우3 △이경범9
△이신재9 △이희복8 △임병준8
△임전수6
◆FIP △서덕화2
◆GLP △김강호4 △김종길19
△김태환27 △대현16 △류명선21
△마명욱23 △박동하27 △박삼수24
△양재길5 △윤석호7 △이상복25
△이승구15 △이용문17 △이정우13
△이효승26 △이희명26 △임채룡26

△장수연22 △정경인13 △허수진14
◆ALP △성기영17 △이승림11
◆ANMP △엄옥봉1
◆SPARC △김두석23 △김신영12
△안상휘23 △이세형17 △이수원15
△장효상11 △최태균21
◆AFP △이동영9
◆ASP △문병철11 △이상용23
△이전식25 △조성목23
◆IFP △백종화2 △이동기7
△주복식3 △최명수2
◆BCP △김원부8
◆ABKI △박점순2

일 반

◆인문대 △강기훈90 △고병철66
△김신한89 △김왕철71 △김유진97
△김하늬05 △남창경81 △민유진10
△박영진08 △방문규81 △배성희06
△신강문92 △신원근86 △양혜진02
△오은환07 △오해영72 △유성원86
△윤나경06 △윤희상08 △이광성93
△이나환09 △이동웅77 △이동익98
△이상식05 △이용운00 △이우열04
△이재환82 △이정근03 △이주현99
△이준상65 △이현정08 △장혜지03
△전병구84 △정윤광66 △조연수89
△주인규06 △현다정09 △홍영호75
△홍인기07 △황영준01 △황지우72
◆사회대 △강성철98 △강창기99

△곽봉수82 △권용발74 △권준성92
△김경원07 △김계수81 △김균영84
△김민관97 △김민선10 △김세준08
△김수지09 △김승기69 △김용숙76
△김원주01 △김정환09 △김창선84
△김창효83 △김철수72 △김현민01
△김현철83 △나은영90 △민명기06
△박다혜04 △박세정10 △박소영10
△박옥란08 △박정환07 △박희대11
△배준호08 △신계용82 △신정호09
△양소은03 △오경수00 △윤민수04
△윤성식05 △이동원06 △이선아97
△이설아08 △이수경09 △이시환74
△이윤섭84 △이은정05 △이일현75
△이종관74 △임중희05 △임지영09
△장재민07 △정규익73 △주명훈90
△차경민02 △최성욱86 △최영섭86
△최준혁89 △최종완00 △최호승97
△한재연84 △함보현95
◆자연대 △강문기68 △고영미83
△금왕호07 △김 훈10 △김미현04
△김민영09 △김민주11 △김상현05
△김승근86 △김영동85 △김영학81
△김용환74 △김주훈02 △김지구07
△김진규78 △노주현83 △박상현11
△박영조05 △박지용89 △박해선78
△백경렬12 △백인환10 △손창원78
△신용익72 △신용일95 △심은영05
△양중섭83 △오창률95 △유병수77
△유영만84 △유해경07 △윤진명10
△이상윤90 △이상윤00 △이상휘03

△이성민10 △이승구79 △이예슬11
△이용희84 △이인기72 △이한이87
△임경수06 △임병호05 △임승환11
△임호빈10 △장경우78 △장덕진81
△장민성07 △전 솔10 △전용호75
△정삼국76 △조기혁08 △최나락98
△최선영99 △최윤경06 △최운수70
△최태혁10 △최효영11 △한대현09
△홍지석98
◆간호대 △김옥련66 △김유경09
△김현아83 △남선화09 △류수미08
△박정호58 △방활란81 △이진솔09
△임준서09 △장명석10 △정혜선77
△채소라08 △최수정10 △최지선09
△황애영68
◆경영대 △김관수08 △김기훈02
△김동석69 △김동희88 △김원재84
△김현주03 △류 열79 △박봉호04
△박아란97 △박종욱06 △박희수71
△오경승83 △오윤근06 △오정규77
△우정원07 △윤민근10 △이매리09
△이상우76 △이승훈04 △이철재83
△이형진07 △임성균77 △임지은12
△장제연10 △정문철87 △최우혁06
△하지현07 △한상용07 △홍기택74
◆공대 △강경민01 △강석주12
△강수민94 △강승관10 △강승순71
△강이석70 △강태갑59 △강현우07
△고승구76 △고준수72 △공석봉51
△곽삼진52 △곽희로61 △권 윤05
△권남석93 △권영선51 △권오동69
△권오웅74 △권하욱96 △김 영53
△김 철60 △김갑환73 △김기웅60
△김동규58 △김동순71 △김두현72
△김민식68 △김민철97 △김병석87
△김병숙52 △김보균96 △김봉균08
△김상수66 △김성철88 △김성태55
△김수광57 △김신주11 △김영석12
△김용수79 △김인선65 △김일두06
△김일우70 △김일형75 △김재열09
△김재용07 △김재환54 △김정근60
△김정덕69 △김정웅60 △김정제61
△김정현12 △김종규82 △김종훈93
△김주혁10 △김주호52 △김준학10
△김채영05 △김천주57 △김충섭65
△김충은99 △김택중56 △김필한53
△김학기50 △김학성85 △김해길50
△김형규10 △김형전52 △김형준76
△김형태57 △김홍엽57 △나영수06
△남학우54 △노오현63 △노호우01
△류충열97 △마춘경54 △명동일04
△문섭철78 △문제준71 △문주성08
△박광근02 △박노열06 △박상언09
△박상우10 △박선영09 △박승엽46
△박용규80 △박용수67 △박용철55
△박용택63 △박원준76 △박정우83
△박종규68 △박종식70 △박종철06
△박종태82 △박지형03 △박진영76
△박창수09 △박혁준10 △박형호54
△배승환54 △백계현10 △백봉근50
△변문현53 △변세홍93 △변수근57
△서동완12 △서병은58 △서승범09
△서인원52 △성 현05 △성용선65
△손세근74 △손승완08 △송규동85
△송영수01 △송완근53 △송재규55
△송재국52 △송철상61 △송희국55
△신경식49 △신원동85 △심규대05
△안상규85 △안소담12 △안재식03
△안종린80 △양승훈05 △양인철64
△연관희86 △오익환56 △오재건61
△오제환84 △오창훈96 △오효석74

△원상현05 △원용민54 △원종호98
△유권환56 △유병철09 △유영로65
△유제호79 △유태근04 △유현우10
△유현준01 △유홍식53 △윤엽선72
△윤영찬67 △윤재호74 △윤정호69
△이갑훈82 △이거승07 △이건희11
△이경식78 △이광우60 △이광원69
△이기성53 △이기수09 △이미지03
△이민정07 △이민중79 △이병수57
△이선행57 △이성기03 △이성주83
△이성철66 △이수현05 △이승훈98
△이영우58 △이용욱91 △이용재02
△이우현52 △이유진10 △이윤빈92
△이웅직51 △이인태53 △이재학54
△이재환06 △이정균77 △이정호79
△이종천86 △이진형07 △이진호80
△이창섭70 △이채관07 △이학수03
△이혜연09 △이호선91 △이호용11
△이호원07 △임동진12 △임응국45
△임혜숙98 △장근홍96 △장원상00
△전구현54 △정동식72 △정민철08
△정승교07 △정우재06 △정원배59
△정위수02 △정을호68 △정지철77
△정재길55 △정찬기10 △정해걸69
△정해철59 △정호상59 △조남철62
△조승우95 △조용재51 △조유근67
△조재훈08 △조철진10 △조형래58
△주관정76 △주준호04 △지태용51
△진조철76 △차덕용07 △차승현08
△차형준86 △전성대66 △최근호57
△최규상72 △최근준10 △최영목71
△최영태70 △최용환87 △최우방63
△최우영98 △최의원54 △최정립53
△최진혁85 △하진수78 △하태광84
△한건우55 △한다빈10 △한창희66
△허창환10 △홍성표58 △홍윤기06
△홍정석09 △홍종우53 △홍진표64
△황영문53 △황재광57 △황종열69
◆농대 △강석훈84 △강용신54
△강정일64 △강종수04 △강창식56
△고영근78 △고정원55 △곽 현88
△권원중56 △권인규94 △길용규83
△김 현58 △김경성79 △김관우83
△김교홍52 △김명호70 △김민기57
△김상후64 △김성우03 △김억년61
△김영각49 △김영욱63 △김영택55
△김용하79 △김의도87 △김인기60
△김정웅56 △김진배73 △김진태75
△김찬조49 △김태선56 △김학면64
△김한수57 △김현성71 △김호일68
△김홍철78 △김휘전63 △김희창61
△나용준53 △노유선06 △노재후60
△맹춘하62 △문규해56 △민병욱76
△민재훈77 △박경원08 △박금수78
△박봉현68 △박용제67 △박재형48
△박정덕55 △박종대76 △박종문64
△박진환48 △박천성58 △박홍진67
△배대현48 △배진호07 △백성구57
△변종훈54 △서훈희10 △석창건00
△성우경50 △소혜연10 △손민기99
△손영민84 △손정일85 △송기중54
△송준중55 △송환창46 △신건성62
△신동현08 △신상혁53 △신인근54
△신영재74 △신혜영06 △심영섭57
△심의구50 △안병권79 △안상남58
△안화섭60 △양국현96 △양기웅93
△양기태66 △양동섭90 △오동환84
△오봉국45 △오완수50 △오윤진56
△오장환57 △오종환60 △우제국51
△유 솔09 △유근학55 △유병현61
△유원길63 △유종근86 △유지성59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니스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니스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니스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유지풍⁵⁴ △윤계남⁵⁹ △윤재웅⁰⁹
 △윤창원⁶⁷ △윤희석⁶⁶ △이광웅⁶¹
 △이광현⁵⁴ △이규형⁵⁰ △이기동⁵⁴
 △이기창⁵¹ △이기호⁷⁸ △이길상⁰⁶
 △이남호⁷⁸ △이동재⁵⁹ △이문희⁷⁷
 △이민재⁵⁷ △이병훈⁵⁸ △이세연⁷⁹
 △이순남⁸¹ △이순혁⁵⁹ △이양섭⁷²
 △이영돈⁶⁴ △이영호⁶⁸ △이용남⁶¹
 △이용준⁹⁰ △이윤희⁶⁰ △이익수⁷⁰
 △이장환⁵⁸ △이재경⁹⁸ △이재성⁵⁶
 △이전학⁶⁰ △이종섭⁵⁷ △이종수⁸²
 △이종택⁶⁷ △이종화⁵¹ △이준교⁸⁷
 △이중훈⁴⁹ △이해문⁷⁰ △이형구⁶¹
 △이형익⁶⁴ △인치종⁵⁴ △임정선⁰⁹
 △장석환⁵⁸ △장성종⁵⁸ △전우방⁵⁵
 △전종갑⁷² △정규희⁵⁹ △정민섭⁵⁹
 △정선자⁶² △정한수⁸² △정현섭⁵³
 △정환철⁹⁴ △조명래¹⁰ △조비행⁵⁸
 △조안부⁵⁵ △채정석⁷⁸ △최규용⁷⁴
 △최동인⁷⁵ △최연호⁷⁴ △최영일⁴⁶
 △최주권⁵⁵ △최진현⁶⁴ △한광희⁵⁵
 △한성식⁵⁸ △한재휘⁰⁷ △한휘석⁵⁷
 △홍석인⁵⁷ △홍성철⁵⁰ △황도연¹²
◆문리대 △강신성⁶⁵ △강진표⁵⁵
 △강일규⁵³ △권순식⁶⁵ △김 윤⁶¹
 △김 인⁵⁹ △김규현⁵⁰ △김대천⁵⁹
 △김동진⁶³ △김득수⁵⁷ △김만옥⁵⁹
 △김병상⁶⁵ △김봉영⁵⁸ △김상철⁶²
 △김수춘⁵⁴ △김숙자⁵² △김영소⁶⁶
 △김영식⁶⁴ △김용달⁵⁷ △김용직⁵⁸
 △김용태⁵³ △김윤수⁵⁷ △김윤식⁵⁵
 △김인철⁶⁰ △김종섭⁵¹ △김종수⁶²
 △김현권⁷¹ △김형배⁶⁷ △김하중⁵⁴
 △김희준⁶¹ △남성우⁵⁹ △노순주⁵⁹
 △류민성⁶⁴ △박대영⁶⁰ △박영기⁵⁸
 △박옥순⁵⁹ △박의일⁶¹ △박종대⁶⁰
 △박찬범⁶² △방형운⁵⁸ △변창실⁵⁴
 △부태삼⁶⁵ △서연호⁵⁷ △서지원⁷⁰
 △손수남⁶⁸ △송병찬⁵⁹ △송한호⁵⁸
 △신건호⁵⁷ △신중성⁷⁰ △신화영⁵⁹
 △안복숙⁵⁷ △안원태⁵² △양동철⁵⁸
 △양승영⁵⁷ △오봉환⁶¹ △오행조⁶¹
 △원이숙⁵⁴ △유지현⁶⁷ △유희형⁶⁰
 △윤 선⁶⁴ △윤병석⁵² △윤병태⁵⁶
 △윤영식⁵⁴ △윤용식⁵⁹ △윤임구⁶¹
 △윤태호⁶⁶ △이건원⁶³ △이광웅⁵⁹
 △이규호⁶⁸ △이동남⁷¹ △이민우⁶¹
 △이영주⁶⁰ △이우현⁶⁰ △이육재⁵⁸
 △이인수⁶³ △이정세⁵² △이정수⁶⁴
 △이종명⁵⁴ △이종혁⁵¹ △이주영⁶²
 △이준기⁵⁴ △이태형⁴⁶ △이효정⁷¹
 △인오룡⁷⁰ △인운섭⁵⁷ △임형두⁵⁷
 △장내식⁶⁵ △전광현⁵⁷ △전병식⁵²
 △정관철⁵⁹ △정광우⁶⁴ △정규석⁵⁶
 △정양모⁵⁴ △정용승⁵⁸ △정해일⁵⁸
 △조창대⁶⁶ △조희근⁷¹ △주순호⁵¹
 △최순봉⁵⁵ △최인승⁵⁸ △최창섭⁶¹
 △최흥기⁴⁸ △최희승⁶⁰ △추국엽⁶²
 △홍순호⁵⁷ △홍승호⁵⁷ △황영선⁵⁸
◆미대 △강태성⁴⁹ △김민지⁰¹
 △김병욱⁴⁸ △김재형⁰² △김지열⁵⁶
 △김지현¹⁰ △김지희⁵⁹ △박은유⁰⁹
 △손은신⁸² △신화정⁸⁹ △오지은⁰⁸
 △원묘희⁵⁹ △이다미⁹⁵ △이우범⁶⁷
 △이운식⁵⁶ △이지인¹⁰ △이혜인⁶⁴
 △이환범⁷³ △임명옥⁸¹ △전영화⁴⁹
 △정정자⁶⁰ △정평숙⁵⁴ △진광산⁶²
 △최동진⁶⁰ △최숙경⁵⁹ △최인수⁶⁶
◆법대 △강재민⁰⁷ △고재화⁶²
 △곽영욱⁶⁸ △곽정출⁵⁷ △곽희준⁵⁸
 △권기대⁹⁵ △권형준⁶⁷ △금유식⁵⁹

△김 철⁸³ △김규연⁶¹ △김기남⁰²
 △김기전⁵⁹ △김기현⁵⁷ △김다솜⁰⁷
 △김대영⁷¹ △김동익⁵³ △김보섭⁸¹
 △김상구⁵⁵ △김상태⁶⁶ △김선아⁰⁰
 △김성배⁷³ △김승동⁷² △김승식⁵²
 △김영선⁵⁵ △김용섭⁶³ △김원철⁶⁶
 △김윤상⁸⁸ △김율섭⁵⁶ △김일덕⁵⁶
 △김재기⁶⁸ △김재하⁶³ △김종국⁶⁵
 △김종수⁸⁴ △김진홍⁵⁷ △김현석⁷¹
 △김혜수⁰⁷ △김호윤⁷³ △김황식⁶⁷
 △리준훈⁶⁴ △류채영⁰⁶ △류택영⁴⁹
 △문용선⁷⁶ △문진구⁰¹ △민동섭⁰⁶
 △박병연⁶⁷ △박병희⁵² △박성규⁷⁷
 △박성현⁰⁷ △박세철⁵¹ △박세현⁹³
 △박종국⁶⁵ △박종성⁷³ △박종태⁸⁴
 △박진수⁰⁸ △박홍식⁵⁵ △박홍우⁷⁰
 △백형일⁵⁸ △성창익⁸⁸ △소철룡⁶⁸
 △신근식⁶³ △신수길⁷⁷ △신영민⁷⁵
 △신진민⁶⁰ △심한준⁵⁹ △안의환⁹²
 △여정구⁷⁴ △염정훈⁴⁹ △오형환⁶⁵
 △우영진⁵² △원윤목⁵⁵ △원의종⁵⁵
 △유상순⁷⁶ △유효봉⁶⁰ △윤용섭⁷⁴
 △윤우정⁶¹ △이근윤⁷⁶ △이상수⁰⁷
 △이상호⁸⁵ △이석봉⁴⁹ △이승환⁵⁵
 △이재덕⁸² △이재우⁸¹ △이재희⁵⁷
 △이종찬⁶⁶ △이주성⁷⁶ △이춘식⁵²
 △이태식⁵⁷ △이필관⁹⁰ △이학무⁵⁵
 △이현수⁹² △임승관⁷⁰ △임혜리⁰⁵
 △전원배⁷² △전주혜⁸⁵ △전하은⁷⁴
 △정 철⁵⁹ △정극수⁵⁵ △정기연⁰²
 △정다위¹⁰ △정상조⁵⁷ △정영일⁷³
 △정용재⁵⁷ △정원진⁸⁸ △정일민⁷²
 △정재형⁵⁸ △정재훈⁹⁰ △정해방⁶⁹
 △조경호⁵¹ △조남현⁵⁴ △조병직⁴⁶
 △조복환⁷³ △주용완⁸⁹ △주진오⁹⁹
 △지도훈⁰⁷ △최세운⁰⁰ △최원빈⁵³
 △최은수⁷² △한경수⁷² △한계환⁴⁹
 △한기일⁵⁸ △한영광⁶³ △현옥순⁵⁵
 △홍성계⁶⁰ △황경진⁵² △황진표⁵⁹
 △황용식⁶³ △황재성⁶⁴
◆사대 △강대길⁸⁷ △강신태⁷⁵
 △강신희⁵⁵ △강호철⁶⁹ △고은별¹⁰
 △고인수⁷⁹ △고지연⁸⁴ △공주렬⁵⁷
 △구도훈¹⁰ △권순용⁶¹ △권오현⁷¹
 △김경렬⁵⁸ △김경수⁵⁹ △김관섭⁷⁹
 △김규형⁵⁴ △김규호⁵⁵ △김길중⁴⁸
 △김명자⁴⁵ △김명해⁵⁵ △김부환⁷⁹
 △김상철⁶⁸ △김선호⁷² △김세철⁷³
 △김세훈⁸⁵ △김소연⁹⁴ △김수신⁶⁰
 △김숙희⁶⁰ △김순신⁵¹ △김연자⁶¹
 △김영철⁸³ △김용태⁵¹ △김윤수⁵⁹
 △김은숙⁵¹ △김은파⁶¹ △김재영⁵⁸
 △김재철⁷¹ △김정연⁰⁹ △김진국⁶¹
 △김찬흠⁶⁰ △김철교⁶⁸ △김필수⁵⁷
 △김현수⁷² △김홍우⁵⁸ △김희분⁵⁰
 △나정운⁵⁸ △남유선⁰⁴ △노두호⁵¹
 △류주현⁹⁰ △문정대⁵³ △문정환⁵⁹
 △민병래⁶¹ △박대규⁵⁷ △박동근⁶²
 △박동원⁵⁸ △박보기⁶¹ △박영덕⁴⁹
 △박영배⁵⁴ △박옥주⁵⁰ △박원선⁵⁸
 △박유민⁰⁸ △박재근⁷⁹ △박점남⁸³
 △박정용⁸⁴ △박종대⁵¹ △박지수¹¹
 △박지영⁰⁷ △박진동⁸⁴ △박창만⁶⁵
 △배현경⁹⁹ △백성준⁷⁸ △백수관⁸¹
 △변희준⁵⁸ △서덕현⁶⁹ △서리화⁸⁶
 △서태근⁵⁶ △석중현⁸⁴ △손경애⁵⁷
 △손낙철⁴⁹ △손수일⁴⁸ △손충익⁵⁶
 △송다은¹⁰ △송선영⁰⁰ △송인숙⁷¹
 △송찬엽⁸⁰ △송희영⁰⁹ △신미영⁷³
 △신석환⁵⁷ △신정숙⁶⁷ △심상석⁵⁸
 △양세영⁰⁷ △양인환⁵² △여병구⁸¹

△예원혜⁶¹ △오종식⁵⁷ △우상혁⁵⁶
 △유봉호⁴⁸ △유석렬⁵⁸ △유성렬⁷⁴
 △유우길⁶⁵ △유효숙⁵¹ △윤기승⁷²
 △윤기호⁰³ △윤병웅⁶⁴ △윤성수⁶⁴
 △윤웅섭⁸⁰ △윤정희⁵⁴ △이강인⁷¹
 △이달덕⁷⁰ △이동민¹⁰ △이발렬⁶⁵
 △이병주⁵³ △이상목⁵³ △이수찬⁵⁶
 △이언종⁰⁹ △이영윤⁵⁸ △이영자⁶⁰
 △이예진¹⁰ △이용훈⁵⁰ △이원희⁶⁹
 △이은혁⁰⁸ △이인희⁶¹ △이정태⁵⁵
 △이종락⁵⁸ △이주찬⁶⁷ △이진호⁸⁵
 △이춘산⁹⁶ △이태준⁴⁸ △이현수⁵³
 △이현영⁵⁶ △이혜진⁹⁶ △이화진¹¹
 △인안숙⁵⁴ △장도진¹⁰ △전명수⁵¹
 △전방근⁷⁷ △전쌍식⁸⁷ △정경자⁸⁹
 △정관덕⁵⁹ △정광석⁹⁴ △정광윤⁰⁸
 △정기숙⁵⁵ △정동화⁵³ △정명진⁴⁷
 △정성환⁹⁷ △정영숙⁵⁸ △정운영⁷⁶
 △정이든¹¹ △정차근⁶¹ △정차순⁵¹
 △정찬현⁷⁴ △정풍호⁶¹ △정현재⁰⁹
 △정혜진⁹⁸ △조병완⁵³ △조선형⁵⁹
 △조해내¹² △지충성⁵⁷ △전석현⁵⁵
 △최대목⁶⁰ △최명중⁵⁶ △최범선⁸⁶
 △최수연⁶⁹ △최연수¹¹ △최정국⁷⁰
 △최학준⁶⁰ △최현실⁸⁷ △최흥기⁷³
 △추건이⁵⁸ △하양희⁵⁷ △한 준⁷⁴
 △한공우⁵³ △한난숙⁴⁵ △한상표⁵⁶
 △한인영⁰⁸ △한재란⁰⁸ △허은순⁸⁶
 △허현도⁵² △홍학순⁵³ △홍한유⁵³
 △황권오⁷¹ △황능하⁵¹ △황정규⁵⁷
◆상대 △강웅식⁵⁸ △강화중⁶⁸

△강희봉⁵⁶ △고봉상⁷¹ △곽영홍⁵⁷
 △권혁조⁵³ △권혁태⁴⁹ △김경모⁵⁶
 △김기현⁶¹ △김동엽⁶² △김두남⁵⁸
 △김무양⁶³ △김선정⁵⁴ △김성락⁴⁶
 △김성주⁵⁵ △김용민⁷⁰ △김용일⁶⁸
 △김윤하⁶³ △김종창⁵⁵ △김종호⁵⁴
 △김형철⁶⁹ △노병태⁶¹ △박기환⁶¹
 △박용희⁵³ △박원규⁵⁸ △박지중⁶⁶
 △박진국⁶⁷ △박풍아⁶² △박화성⁵¹
 △박희소⁶² △배상전⁵⁷ △배재규⁵⁷
 △배진성⁵⁸ △백운생⁶² △백찬목⁴⁸
 △서강무⁵⁸ △손기혁⁵⁸ △송인구⁵⁹
 △심문섭⁵⁴ △심정수⁶³ △안병택⁷¹
 △안익수⁵³ △안홍지⁶¹ △유춘상⁵⁴
 △유해수⁶⁷ △윤계섭⁶⁴ △윤록현⁵⁹
 △윤하균⁵⁵ △이규종⁶⁵ △이기주⁴⁶
 △이동재⁵⁴ △이병서⁵⁶ △이승로⁴⁹
 △이영서⁶¹ △이영일⁶³ △이영철⁶⁸
 △이용기⁵⁷ △이정권⁵⁷ △이학갑⁶²
 △이해웅⁵⁵ △이호철⁵⁷ △장동수⁵⁸
 △정덕화⁵⁶ △정종찬⁷¹ △정철우⁵⁷
 △정택수⁵³ △조관호⁵⁶ △조희원⁶⁴
 △지영식⁵⁷ △탁승호⁶⁵ △한장식⁶⁰
 △한철수⁶² △함택립⁵⁹ △홍구희⁵⁷
 △홍동진⁴⁸ △홍용찬⁶⁴ △황정길⁶²
◆생활대 △김순오⁵⁵ △김연지⁰⁸
 △김영웅⁰³ △김예지⁰⁸ △김옥순⁵⁷
 △김혜숙⁷² △남기숙⁵⁷ △명은숙⁸⁶
 △박형운⁸³ △서은영⁸⁴ △양정숙⁰⁸
 △육완진⁵⁷ △이미세⁷² △이송희⁷⁸
 △이지수⁰⁰ △임정민⁵⁷ △조규연⁵⁸

△조은희⁷⁶ △최소연⁰⁹ △최운정⁸⁴
 △최종단⁸³ △하세현⁸⁷
◆수익대 △김경희⁵⁶ △김동환⁸²
 △김민영⁵⁰ △김명중⁵⁹ △김석호⁵⁸
 △김용백⁸⁶ △김준삼⁵⁵ △김홍욱⁶⁴
 △문규환⁸⁴ △문선창⁶⁵ △박선규⁶⁰
 △박승도⁶⁶ △서광원⁸⁵ △서세일⁷⁶
 △송기흥⁶¹ △오남진⁶⁷ △유병문⁶⁷
 △이강훈⁵⁸ △이경환⁶⁰ △이문성⁶⁰
 △이성탁⁶¹ △이성호⁵⁸ △임윤규⁷⁵
 △장수화⁰⁵ △조기형⁴⁹ △조병기⁸⁷
 △조찬용⁶³ △최지희⁹⁷ △최홍렬⁶⁶
◆약대 △김영길⁶¹ △김옥란⁵⁵
 △김현주⁸⁷ △박만기⁵⁹ △박혜량⁰⁹
 △배옥남⁹⁵ △송나라⁰⁵ △송순자⁶⁰
 △신광수⁴⁷ △양영자⁵¹ △염정현⁹³
 △우제안⁵⁷ △윤광수⁶⁹ △윤정민⁵¹
 △이명환⁵⁵ △이상실⁵⁵ △이상준⁶¹
 △이우영⁷¹ △이진희⁰² △이해빈⁵⁸
 △임정은⁷⁶ △임현정⁶⁸ △장구경⁵⁵
 △정구중⁷⁶ △정근배⁶¹ △정숙기⁵⁴
 △정원장⁰⁵ △조혜숙⁵⁴ △차민정⁰⁹
 △채영주⁵² △최수안⁰⁴ △최흥관⁶⁹
 △하성상⁵⁸ △한병련⁶⁸ △한진호⁵⁹
 △홍우일⁶¹ △황봉자⁶¹
◆음대 △강평숙⁵⁴ △곽지향¹⁰
 △권혁남⁵⁸ △김인제⁷⁴ △김재미⁸⁴
 △노선형⁰⁹ △문용숙⁷⁵ △박수전⁶⁷
 △원호선⁷⁴ △유혜림⁰⁹ △유효정⁰⁰
 △이윤영⁵⁷ △이정현⁰⁰ △이종찬¹⁰
 △임동창⁶¹ △장희순⁸⁹ △정상열⁸¹

행복을 나눕니다

로컬푸드 사업지원
 농민들의 직거래를 돕는 어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농작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농가 소득 확대 및 선순환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를 시작으로 김포, 포천, 세종 등 지속적인 지역 확대를 통해
 ICT를 통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정보 격차를 겪고 있는 30만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음성 도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구성된 27만 5천여 건의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까지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iveU
 언제 어디서나 기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로
 지금까지 약 20만 건의 참여를 이루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CT를 통해 편리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ICT 기술이 모두를 행복으로 연결합니다

SK텔레콤의 ICT가
 행복을 키우는 직거래장터가 되고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이 되고
 행복을 나누는 기부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ICT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K telecom

△정은이81 △주나영10 △주인혜10
△최승용78 △홍명숙74
◆의대 △강준희99 △권영표43
△권영현74 △김 윤62 △김기용54
△김범용53 △김병학68 △김순택57
△김영태65 △김진희08 △김철규58
△김형석00 △김희경08 △라환도07
△류정주10 △박선재52 △박용화55
△서재성88 △성낙응44 △성민용10
△송만준57 △신상만61 △안문성78
△안영준89 △오정성67 △유근식90
△유상현10 △유창민94 △유창윤10
△윤경애79 △윤기욱11 △윤세희68
△윤용구66 △윤용수65 △은 용09
△이근후77 △이도희78 △이돈영46
△이무훈81 △이방제57 △이상완55
△이선용56 △이수연11 △이승준08
△이승철68 △이정규56 △이정훈04
△이종석10 △이희발59 △임용오57
△전형경88 △정성원10 △정용화56
△정재현12 △정진섭10 △정현석09
△조진규46 △주경란69 △최소호08
△최완주73 △하은주79 △황소연06
◆자유전공 △구본호10 △김수민10
△양주형09 △유영상09 △이영우10
△이지은09 △조동우11
◆치대 △강대준62 △고진수58
△구 영80 △권일근56 △김명수66
△김민수56 △김영수57 △김용철63
△김익현78 △김정란79 △김종배58
△김현수74 △김화봉77 △남상범83

△명동성61 △문창남58 △박승오62
△성철제63 △신현준71 △양유경12
△양준모75 △우제은59 △유병현07
△유영아73 △윤명국59 △윤재각63
△은세원81 △이만선66 △이상명69
△이양구57 △이유식74 △이인경82
△이종재82 △이창엽89 △이혜진97
△정상훈71 △주성원10 △차봉익69
△최기정89 △최승은63 △최지원86
△최형화85 △한광현68 △한기완67
△한보규69
◆대학원 △구자전64 △김상천86
△김정권79 △노경수81 △문종익59
△박용희62 △송승욱76 △신범석89
△윤도순84 △이정길63 △임선하79
△최전석77 △함성일02 △허찬수72
◆MBA △오혜연11 △정병갑12
◆경대원 △손영수68 △장대길68
△조형규67
◆교대원 △김기태71 △김범기77
△김중기64 △이상길70
◆국대원 △원준희12
◆법대원 △양재현11
◆보대원 △강성도86 △강신아12
△남순주80 △박형언87 △백기진05
△선병관98 △유은정12 △이선영09
△조준국84 △최용아67 △한은숙03
◆신대원 △강민장68 △송경섭74
△이민희73
◆의대원 △김영재10
◆치대원 △김찬영10 △박두은10

◆행대원 △김동희10 △김용국74
△김원영70 △김일무75 △김호산04
△문병향67 △박근호13 △전상우10
△정효성82 △조경규87 △최대용85
△최봉기77 △최성안82 △한일주68
◆현대원 △박상진94 △박춘배77
△양언모82 △이기택78 △전은선10
△황보영춘83
◆용대원 △신동훈11
◆AMP △강중현26 △강호정38
△김 반46 △김경덕18 △김수곤20
△김영광65 △김우겸71 △김정철77
△김창진73 △김철우31 △김필수25
△김홍식31 △김홍일77 △문정국31
△박세영13 △박순관8 △박영수33
△박재명18 △박재상6 △박종인42
△박혜정76 △성낙현77 △송준강33
△신태범5 △삼행진16 △원종해69
△유시종19 △윤태하34 △이동우71
△이상택40 △이석범31 △이성연4
△이순세22 △이창호37 △이준호46
△이화일13 △장복진21 △장지학77
△정공식63 △정기택31 △정하덕23
△조대현58 △주영연9 △한명섭77
△홍기호47 △홍완기77 △홍중대4
△황기홍57 △황학수27
◆AIP △강성권50 △고귀선19
△공학선44 △구민철51 △김창진48
△김효선51 △남원순51 △박기동51
△박재홍7 △박종호9 △서영주46
△성필선36 △송종채46 △신길웅10

△염석훈7 △이명래19 △이상호8
△이천우13 △이태화16 △정연구30
△함광남8 △홍강지30
◆ACAD △곽상하26 △김기봉50
△김대경16 △김만기7 △김성만39
△김은기57 △김재영43 △김종구47
△노병균77 △박동근41 △박승희50
△박신광40 △박용암43 △박인수17
△변희준20 △송근호33 △신태희32
△안인순55 △유성훈34 △유영우35
△이문용27 △이범진48 △이상조74
△이정구22 △장준경3 △정도정71
△조강호37 △조용안29 △조현형35
△지태욱20 △최남진34 △최동화29
△최차규70
◆ABP △권금자23 △김범식31
△김영화42 △김종욱29 △박인수17
△송기택23 △임채호39 △황세영37
◆SGS △강원수30 △김복식30
△김재경1 △왕효석27 △윤 건4
△이강수30 △전태효30
◆APC △강연수20 △김연광11
△김영복19 △류승현19 △박만배12
△박용규20 △박종현20 △손세창19
△신헌주18 △안종식20 △양동주15
△오인승20 △이범희3 △이영세4
△이종국20 △이창우10 △임기환17
△임윤순19 △장 훈20 △정락진10
△조영대10 △조의상16 △조희원14
△주재현4 △최재영17 △황재문14
◆CHCN △이서현5
◆CPHN △김연희3
◆HPM △구본세32 △권용준27
△김능환31 △김성곤28 △나병기29
△백명식32 △송선엽32 △유래관32
△윤진환31 △이병준22 △이용구31
△장혜경32 △전필동28 △정기화32
△제진호32 △채상식17 △최현섭32
△최호진16 △현대우1 △홍의표9
△홍훈표32
◆AMPP △강용주15 △김상욱7
△김용철15 △김호진14 △문병일15
△박천주15 △신종명15 △심승섭15
△이진환15 △정광식15 △정영민12
◆AIC △김병근37 △김순식37
△김재현36 △김홍원22 △이건수35
△이수호23 △임상선31 △임연주37
△전 진5 △정재균2 △최경하2
△황해은37
◆AFB △곽영철14 △김기백14
△김명중10 △김재명7 △김형일14
△박인수11 △박철호14 △방주철14
△오승철14 △이광연9 △임대빈14
△장창주14 △정윤희14 △주석구14
△허 훈12
◆AMPFRI △김상남31 △김태균31
△김홍철31 △남선희31 △문용기28
△안재수31 △여정옥11 △윤평원9
△이우규26 △정견진31 △정관희6
△정행성8 △하문정30 △한정기1
△황재웅7
◆ACPM △김락중6 △안순철3
△전영철1
◆FIP △박상기5 △이부일2
◆GLP △권기원23 △김병림28
△김병희27 △김성훈18 △김영국6
△김지영28 △김태화11 △문기정28
△백종열28 △서순권28 △안종욱28
△오민정28 △윤경상22 △이영길28
△이혜연28
◆ALP △강영선20 △김정식20

△안철상19 △여주호20 △윤창인19
△이방수20 △이용식19 △이태근19
△장석산9 △정일석4 △정재흠12
△황윤구20
◆SPARC △최평규4
◆AFP △김인근14 △김주원14
△송치호13 △신상문14 △황세희14
◆ASP △김진호1 △민경원27
△박도규14 △박종진27 △신화영27
△염경열13 △유경혜27 △임식순25
△장인원10 △정인상27
◆IFP △강경태10 △권동엽11
△김봉춘11 △박만섭10 △서지희11
△손남숙11 △유성민11 △허운순11
◆ABKI △박종명1 △이금남4
△최희남1
◆KFL △김성희13 △김옥수18
△김은경13 △문광자13 △박상현13
△박은경18 △유재기16 △이경근18
△정연옥8 △정희원8 △전태일11
△최승훈7 △최향연17 △토토쿠니4
◆FNP △공재기5 △김상현3
△김원식2 △김은미2 △노영수5
△류재철3 △류충현5 △박공영4
△방남휴2 △송승현1 △안영후4
△유기춘3 △이현송5 △임일두5
△임희문1 △진용두3 △차용범5
△최창환3
◆AWASB △김기완1 △김수원1
△김용출1 △남상구1 △노윤하1
△박한준1 △석재수1 △심승호1
△이기금1 △전석교1 △전창린2
△최종수1

분 담 금

◆일본지부 1백만원

2014년 12월	
연 회 비	35,680,000
평생회비	39,600,000
입 회 비	380,000
분 담 금	1,000,000
계	76,660,000
2014년 누계	1,257,334,484

신년교례회 협찬 감사합니다

〈일금 100만원〉
△이영선 상대33
△최명진 (공대86동기회)
〈일금 50만원〉
△박정신 상대33
〈일금 30만원〉
△문익상 법학58
〈일금 20만원〉
△이건원 문리63 △장혜실 음대69
△김경일 ALP3
〈일금 10만원〉
△구용호 SGS18 △김영화 공대59
△김형락 APC3 △심종택 AIP15
△안상태 AMP46 △유익선 공대59
△윤의광 공대59 △이경봉 AMP38
△이규본 수의61 △임성모 사대61
△정병관 敎院69 △정해영 농대66
△조길웅 HPM14 △한갑수 문리52
〈일금 6만원〉
△정연옥 KFL8

SēAH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특수강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1위의 특수강 전문기업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및 트랜스미션에서
발전 및 화공플랜트, 선박, 산업 기계까지
대한민국 특수강 No.1 기업을 넘어
특수강 글로벌 리더 기업을 향해 나갑니다.

미래를 만드는 철의 기술 - SēAH 세아베스틸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2015
WINTER



LOUIS CASTEL
PARIS

한 올의 실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NevurN®



삼일방직 네번은 특허등록된 난연성 원단으로 원사에서 제직, 염색, 가공까지 일관생산체계를 갖추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번 원단은 산업현장 및 캠핑 등 레저생활을 위한 아웃도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성 화재, 전기아크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잘 타지 않고 녹지 않는 영구적인 난연기능의 소재입니다. 뛰어난 열·화상 방어력과 마모 저항성, 내구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발생을 차단하고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함유하여 편안한 착용감과 인체 친화적입니다. 밝은 색상으로 쉽게 염색이 가능해 산업 안전복, 보호복은 물론 레저용 패션의류 제작이 가능합니다.

 **삼일방직주식회사**

본사·공장: 경북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39 전화: 053)810-7255 팩스: 053)817-3139
 비산 공장: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11길 56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8층 전화: 02)528-4431

www.samil-sp.co.kr